

# 미국 거주 탈북자의 생활과 적응

제출일: 2008. 9. 9

한국학 중앙 연구원 한국학 대학원

문화 종교 계열 인류학 전공

학번: 20064151

신 난 희

# 목차

1. 서론
  2. 기존 연구
  3. 연구 방법과 연구 과정
  4. 미국 거주 탈북자 개관
  5. 미국 이주의 배경
    - (1) 이주의 원인
    - (2) 이주 경로와 이주 유형
      - 1) 이주 경로
      - 2) 이주 유형
  6. 미국 생활과 적응
    - (1) 의식주
    - (2) 생계와 직업
    - (3) 믿음과 교회
    - (4) 탈북자 지원단체와 자생적 탈북자단체
  7. 결론
- 참고문헌

## 1. 서론<sup>1)</sup>

본 논문은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전후하여 미국으로 이주해 간 탈북자의 이주 원인과 생활, 적응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들은 정착 과정에 어떤 문화적 자원을 동원하여 적응 하고 어떤 문화적 자원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아직까지 미국 지역 탈북자에 관한 조사가 진척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들의 실태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와 자료 수집을 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탈북자를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북한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북한을 떠난 사람들로 정의한다.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 생활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포함 시킨다. 또 장차 북한으로 돌아가 영구히 살기를 소망하고 있다 하여도 일단 북한을 떠나 제3국 (한국 포함)에 거주하고 있다면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 시킨다.

탈북자 연구의 가장 큰 걸림들은 탈북자 문제를 정치적 입장과 분리하여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탈북자 문제를 남북한의 체제 문제와 분리하여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들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며 해결할 해법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다. 이제 탈북자 연구는 이러한 정치적 맥락에서 한발 떨어뜨려 객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신의 이해를 옹호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편향과 아집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문제의 근원으로 접근해 갈 필요가 있다. 탈북자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 사회의 역량이 이제는 보다 큰 맥락에서 객관적인 자기분석과 비판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세계사에서 냉전 시대가 막을 내린 지 이미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반도에 덮여 있는 두터운 냉기에 쌓여 더 이상 탈북자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북한을 탈출하여 길게는 십 년 짧게는 몇 달의 시간을 거치며 중국에서 한국으로 또 미국으로 끝없이 이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삶을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은 어떤 한계 상황에서 무엇을 꿈꾸며 이주를 시작하였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들의 이주는 미국에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가야 할 것인가?

## 2. 기존 연구

본결적인 탈북자 연구는 1990년대 중반 북한이 대기근을 겪으며 대량의 탈북자가 중국 등지로 유입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초기의 연구는 이들의 비참한 실태와 실상을

---

1) 본 연구는 2007년 3-2008년 2월 한국학 중앙 연구원 학생교류연수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탈북자 여러분과 탈북자지원 단체의 여러 관계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연구에 나타나는 오류와 왜곡은 전적으로 연구자 개인의 책임임을 밝힙니다.

알리기 위한 실태조사 차원에서 행해졌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대기근이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참혹한 현실과 탈북자들의 실상을 조사하여 공론화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거주 공간이 제3국, 한국, 유럽 및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면서 이제 탈북자 연구는 새로운 국면에 이르고 있다.

탈북자 연구는 크게 중국 등 제3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에 관한 연구<sup>2)</sup>와 남한으로 한 탈북자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3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연구는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연구가 가장 많이 되었고 미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에 관한 연구로 본 연구가 처음 시도되었다. 앞으로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유럽 각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에 관한 연구도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한으로 이주한 탈북자에 관한 연구는 양과 질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sup>3)</sup> 남한 거주 탈북자에 관한 연구는 초기의 이주 실태, 이주 원인, 남한사회적응 연구에서 탈북여성 인신매매, 탈북현상을 다루는 정치적 맥락에 관한 연구까지 나아가고 있다.<sup>4)</sup> 이러한 연구들은 북한사회의 가부장적 성격, 중국에서의 한계상황 체험이 이주 후 사회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측면을 주목하고 있다.<sup>5)</sup> 즉, 탈북자의 현 문제는 현재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지난 이주사와 연결시켜 살펴볼 때 총체적인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탈북자에 관한 연구는 탈북 과정에 일어나는 충격적인 현상을 르뽀식으로 조명하는 것보다 탈북자의 예민한 경험을 이들의 시선에서 이해하고 진솔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탈북자들이 상호 경쟁하는 이해 집단 사이에서 희생될 위험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다.<sup>6)</sup>

남한 거주 탈북자가 만 명을 넘어서면서 여러 가지 정착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남한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탈북자 보다 그렇지 못한 탈북자가 더 많이 양산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정신의학적 접근과 심리적 접근을 가지고 분석한 논문이 나오고 있다.<sup>7)</sup> 이러한 접근은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적응의 문제 이면에는 이들이 거쳐 온 이주의 역사 속에 형성된 복잡한 경험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탈북자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는 청소년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sup>8)</sup> 남한에 이주해 오는 탈북자의 2/3 이상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한 거주 탈북여성은 물론이고 일본 및 미국 거주 탈북여성에 관한 연구가 깊이 있게 나오고 있지 않다. 특히 탈북자의 이주사회적응을 다룸에 있어서 이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문화적 자원이 새로운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어떤 장점으로 작용하는지를 주목하여 살펴본 논문은 아직 나오지 않는다.

본 연구는 미국 거주 탈북자들의 행위에는 동일한 행위 구도가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상황과 맥락은 다르지만 그 속에서 반응을 유추하는 구도는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일어난 이주와 적응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에 어떤 상황에서 유사한 현상

2) 김윤정 2006, 허지연 2004, 전병범 2004, 김광복 2004

3) 박윤숙 2006, 김형태 2004, 강주원 2003

4) 임현지 2006, 이승진 2006, 민지원 2003

5) 임현지 2006, pp.5-6

6) 정병호 2004

7) 유시은 외 2005, 전우택 2006

8) 정향진 2005, 정진경 외 2004, 오기성 2003, 이기영 2000, 전익수 2001, 홍덕기 2001, 금명자 외 2004 (박윤숙 2006, p.4에서)

이 나타났는지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과거의 행위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현재의 행위에 대한 이해와 분석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적절한 행위를 유추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 3. 연구 방법과 연구 과정

####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미국 거주 탈북자에 관한 기초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탈북자의 수가 200여명에 지나지 않으나 광활한 미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많은 수가 AB 지역과 CD 지역에 살고 있지만 이 지역 자체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community study 보다 case study로 진행하였다. 탈북자를 만나는 방법으로는 이미 만난 탈북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주변 탈북자를 소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목적에 생애사 수집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되었으나 실제 연구에서 이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미국이라는 현장에서 탈북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여의치 않았을 뿐 아니라 생애사를 이야기하는 인터뷰는 그 자체로 거부되었다. 또 이들은 거의 대부분 어려운 미국 경기 속에서 생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장시간을 연구자에게 할애하기가 쉽지 않았다. 연구자 역시 단기 방문으로 이들을 만났기 때문에 조금씩 오랜 기간 이들과 만나며 조금씩 불신의 장벽을 허물며 접근할 수가 없었다. 연구자의 연구 조건으로는 연구자가 찾고 있던 내용을 이야기해줄 탈북자를 만나기도 또 이들의 마음을 열기도 쉽지 않았다.

처음 석 달 동안 지지부진하였던 원인을 분석하며 연구자는 생애사 수집 방법에서 보다 집약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집중 인터뷰 방법으로 전환하였다. 사실상 생애사 수집에 얼마이지 않으니까 연구자와의 친분 정도에서 들춰보고 싶지 않은 과거사를 이야기 하게 하고 또 이야기해야 하는 상호 부담을 피해갈 수 있어 인포먼트와 연구자 사이의 대화도 훨씬 활발하고 현실적인 주제로 바뀌었다. 집중 인터뷰는 먼저 탈북자에게 이야기를 권하고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끊어지면 미리 작성해놓았던 질문 리스트를 기억하면서 이와 보다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질문 항목을 묻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또 인포먼트의 이야기 가운데 보충하여 알고 싶거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다시 묻기도 하였다.

그러나 탈북자 출신도 아니고 탈북자 지원 사역에 참여했던 것도 아니며 어떤 대외적인 지위와 신분이 있는 것도 아닌 연구자의 경우 탈북자와 보다 긴 시간을 같이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이들의 생활공간에서 배경처럼 존재하며 관찰하는 방법이었다. 이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지 잘 이해할 수 없어 했다. 이들이 흥허물 없이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에 나의 정체성과 관심은 이들에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숙제였다. 이러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자신의 위치를 자연스럽게 한 발 뒤로 물러나 있는 곳에 두려고 노력하였다. 이들이 자신들의 일상을 굳이 변형시켜가면서 연구자를 인식하지 않는 지점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머물며 이들도 연구자를 관찰하고 연구자도 이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편안해지는 것이 필요했다. 어떤 행사나 일에 참여했을 경우도 앞에 나서기보다 뒤에서 돕는 식의 작은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러한 연구자의 태도는 연구자의 성격과도 관련이 있지만 또한 이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들과 갈등 관계를 빚을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고 싶은 마음도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자의 태도는 탈북자들 사이에 반목과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연구자 내면에 깊은 혼란과 방황을 빚어내기도 하였다. 이것은 인포먼트와 형성하는 인간관계를 넘어서는 관계들도 연구해야 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커다란 손실을 가져왔다. 너무 지나치게 관계의 권력을 인포먼트에게 넘겨주므로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인포먼트들을 실제적으로 배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또 한편으로 연구자와 인포먼트의 관계를 건설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본 연구는 2007. 6월, 2007년 10월, 2008년 7월에 AB 지역에서 가진 세 번의 조사에 기초 하고 있다. 탈북자 연구를 탈북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진행할 경우 논란이 되는 것은 그 진술의 진정성 이다. 사실 탈북자들 성명은 대부분 본명이 아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을 감추는 식의 생존 방법에 익숙하다. 이들이 자신의 이해에 따라 생애사를 사실과 다르게 변형시킨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다. 더구나 이들은 한국에서 간증, 강연을 많이 다녔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 내용을 걸러내 생애사를 재구성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진술을 자료로써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도적 변형의 실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 진술의 이중적 구성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진술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한다.

연구자는 한 탈북자를 여러 번 만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알아채지 못하였던 진술의 이중적 구성을 감지할 수 있다. 이것은 연구자가 탈북자와 함께 생활하며 스스로 자신의 체험을 음미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탈북자 연구의 진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들과 만나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어떤 다양한 진술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또한 연구 대상 탈북자와 반대의 입장에서 서 있는 탈북자도 포함하여 폭넓게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의 관찰과 참여 관찰은 DHMK (미주지역 한인교회 연합체)와 디펜스 포럼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진 북한자유주간 참여를 통해 행해졌다. 이 행사에는 탈북자 양수연과 조진형이 이끄는 예술단도 와 있어서 2차 조사에서 수집한 인터뷰 내용들을 검토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 행사에의 참여는 2008년 3월에 연구자가 거주하던 지역으로 이주한 최정화 가족과 김준모 선교사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최정화 가족은 비록 난민 신분으로 들어와 AB 지역에서 만난 탈북자와는 초기적응이 같을 수는 없으나 그래도 이미 몇 년의 시간이 흐른 AB 지역 탈북자들의 초기 적응 과정을 어느 정도는 상상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들과의 가깝고도 냉철한 관계는 연구자에게 미국 내 탈북자의 이중적 위치와 중국에서 행해지는 탈북자 선교의 실제에 대해 구체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DHMK 활동과 새로 이주한 탈북자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연구자는 이들과 미국에서의 지위가 다를 뿐 아니라 지원 활동에서도 배제되어 있는 AB 지역 탈북자에 대해 좀더 조사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세 번째 조사는 사실 두 번째 조사에서 인터뷰를 피했던 탈북자 금잔디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자 계획된 것이다. 연구자는 최정화 가족을 만나며 느꼈던 미국 탈북자 신분 문제를 세 번째 조사 목록에 추가하였다.

두 번째 조사에서 인포먼트들이 사진을 찍거나 비디오를 촬영하는 것에 또 녹음을 하는 것까지 거부감을 보였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도 준비를 해가기는 하였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또 이번에는 연구자 자신이 이러한 tool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만나고 싶었다. 적는 것조차 구체적인 주제에 관한 것이 아니면 드러내놓고 하지 않았다. 그냥 분위기가 흘러가는 대로 대화를 나누었다. 세 번째 인터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구자 개인의 내면과 느낌, 생각들을 인포먼트와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대화를 이들과 나누었다는 점

이다.

두 번째 조사에서는 디비디 제작 프로젝트를 가지고 들어가 녹화를 하였기 때문에 연구자의 의견이나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 자한자유주간 행사에 참여하였을 때도 이들의 의견과 감정, 견해를 관찰하고 듣고 기록하였을 뿐 연구자의 견해나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연구자의 의견이 이들과 달랐기 때문에 솔직한 의견 제시가 이들에게 거리감을 생기게 할 것을 염려한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직 어떤 가치 판단을 하기에 탈북자와 이들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가 부족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 번째 조사에서는 그동안 다져진 친분에 근거하여 좀더 직접적인 의견 교환이나 감정 표현도 시도해보았다. 미묘한 차이였지만 연구자 자신의 감정과 의견, 의도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시도는 탈북자 자신의 솔직한 내면과 의도, 감상을 끌어내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반향을 거두기도 하였다.

탈북자 연구에 있어서 인류학적 연구 방법은 이처럼 다른 방법으로는 쉽게 관계의 외연으로 떠오르지 않는 생동하고 진솔한 의식의 세계를 관계의 표면으로 끌어올려 실체화시킨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연구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인간 연구에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연구자 자신까지도 연구의 도구로 몰입되어 가는 인류학적 연구 방법은 인간 사회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차원을 도입하고 있다. 인류학적 연구 방법은 과거가 가져온 현재를 연구하면서 동시에 연구 과정 자체가 하나의 역사적 현재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방법은 연구자 개인사 속에서 형성된 개인적 편향과 선입견,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무지로 인하여 자료의 의미와 가치를 주관적으로 왜곡시키고 과장하거나 폄하할 위험을 다분히 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비틀림을 발견하고 수집된 자료의 의미와 가치를 보다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평가 비판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이곳에 제시된 연구 자료가 수집된 과정을 있는 그대로 자세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

## (2) 연구 과정

미국 거주 탈북자에 관한 사전 지식은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와 두리하나 선교회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자료가 전부였다. 연구자의 내면에서는 이들이 왜 또 어떻게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호기심과 근심이 뒤섞인 의문들이 가득 일었지만 실제적으로 연구자가 갖고 있는 지식과 자료는 궁금증을 더할 뿐이었다. 연구자가 알고 있는 연락처는 미국으로 이주했다는 한 탈북 청소년의 연락처뿐이었다.

일단 미국으로 건너온 연구자는 미국 국경 지대를 통해 밀입국 하는 탈북자에 관한 소식을 듣기 위해 지역 한인 단체나 교인에게 수소문해 보았다. 그러나 의외로 인근 지역에는 탈북자가 거주하지 않았다. 가지고 온 탈북 청소년과도 연결이 되지 않았다. 연구자는 탈북 청소년이 살고 있다는 AB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 보기로 하였다.

그러나 AB 지역에 가서도 연락이 되지 않아 할 수 없이 이 지역에서 북한 사역을 하고 있는 희망 선교회에 연락을 했다. 그리고 이 선교회가 소개한 한인 신문을 통해 미주지역 한인교회연합체 (이하 DHMK로 기록)를 알게 되었다. 연구자는 이곳에서 통곡 기도 운동, 탈북 난민 지원 활동, 그리고 북한자유주간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었다. 탈북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 연구자는 탈북자들이 살고 있는 한인 타운을 둘러보고 그

냥 돌아와야 했다.

AB 지역까지 가서도 탈북자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연구자는 미국에서 탈북자를 만나 뭔가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좌절감까지 들었다. 그러나 질문의 방향을 바꾸어 다시 시작해보기로 하였다. 왜 이들을 만나는 것이 어려운가? 무엇 때문에 이들은 공적 영역으로 자신을 드러내길 주저하는가? 이들에게는 어떤 선입견과 피해의식이 있는가?

연구자는 한국 선교 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고상혁 목사에게 연락을 하여 미국에서 오래 선교 활동을 한 정덕형 선교사를 소개받았다. 한편으로 난민 지위로 탈북자를 미국에 처음 데리고 온 주기훈 목사 연락처와 연결이 되었다. 주기훈 목사는 EF 지역에서 이민자 지원 센터를 운영하는 김길순 소장을 소개해 주었다. 미국 거주 탈북자에 대한 연구는 이렇게 탈북자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이들을 돕고 있는 주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김길순 소장을 통해 망명 소송을 하고 있는 탈북 여성이 EF 지역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연구자는 이 여성과 접촉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이 여성은 연구자와의 만남을 거절하였다. 이 여성은 AB 지역에서 망명 소송을 하다가 잘되지 않자 EF 지역까지 온 것이다. 자궁암 수술을 받고 친척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던 탈북 여성은 결국 망명 소송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갔다. 기회는 연구자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EF 지역으로 탈북자 양수연, 조진형이 간증을 온 것이다. 인터넷 검색과 첫 번째 조사에서 이미 이름을 들어 알고 있었던 탈북자 부부를 만나게 되어서 연구자는 내심 무척 반가웠다. 이들은 이후 육 개월 동안 연구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두 번째 조사는 좀더 언론에 공개되지 않고 간증이나 공연이 주요한 생계 방식이 아닌 탈북자들을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이 시기에 지역 한인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탈북자 부부가 한인 축제에서 순대를 팔기로 계획하고 있어서 연구자는 이들이 순대를 만들고 판매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다.

순대 제조와 판매 과정에서 연구자는 이상스러운 점을 발견하였다. 이들 부부와 함께 일하는 탈북자 강산, 금잔디 외에 다른 탈북자를 만날 수 없었다. 다른 탈북자가 일을 하는데 들르지도 않고 또 탈북자 강산의 후배 외에는 판매하는 장소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그래도 이 지역에 7, 80명의 탈북자가 있다고 알고 있던 연구자로서는 참 의외였다. 이때는 이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이것은 이들 부부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의 단면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었다. 즉 이들은 실제로 이 지역 탈북자들과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들이 대외적으로 탈북자 단체의 얼굴처럼 활동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기반은 이 지역에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들을 통하여 보다 평범한 탈북자를 만나려는 연구자의 계획은 사실 그다지 기대할 것이 없던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들과 누나, 동생 하며 지내는 탈북자 이신학, 양수연의 아들 박학성, 또 강산과 그의 아내 금잔디, 서로 연락만 하던 정덕형 선교사, 그리고 연락처만 가지고 있던 탈북 청소년 허경순을 드디어 만난 것은 두 번째 조사의 값진 성과였다. 허경순은 아버지가 인터넷을 끊어버리셨는데 허경순과 동생이 너무 인터넷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이다.

두 번째 조사를 마치고 연구자는 탈북자 양수연에 관한 20분짜리 디비디를 만들기도 하였다. 양수연이 한국에서 탈북 연예인을 초청하여 예술단을 조직하여 순회공연을 떠날 때만 해도 연구자가 이들에게 갖고 있던 감정은 아주 따뜻했다. 탈북자 양수연과 탈북자 강산이 함께 기자 회견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들이 만든 탈북자 단체의 활동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 이들이 서로 등을 돌리게 될 거라는 것을 그때는 짐작도 하지 못했다.

탈북자 사회를 들여다보면 의당 등장하는 치열한 갈등과 상호비방이 직접 연구자의 세계



로 들어온 것은 동지처럼 지내던 이들 두 부부가 함께 예술단 공연을 하고 또 순대 식당을 운영하다가 대충들이 발생하면서이다. 이 사건은 연구자를 탈북자 사회의 고질적인 상호 비방과 반목의 진탕 한 가운데 서게 하였다. 결국 몇 달 후 연구자에게 대단히 중요하였던 인포먼트 탈북자 이신학을 잃게 되었다.

그 가운데 최정화 가족을 만난 것은 연구자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최정화 가족은 2008년 3월에 김준모 선교사의 도움으로 EF 지역에 들어왔다. 연구자는 이들을 만나기 위하여 김준모 선교사에게 연락을 했다. 김준모 선교사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던 이들 가족을 만나는 것은 의외로 쉬웠다. 김준모 선교사는 이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의 참상을 알리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인터뷰를 요청하는 거의 모든 사람과 이들을 연결시켜주고 있었다. 인터뷰가 장애에 부딪친 것은 연구자와의 만남이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파악한 탈북자 최정화가 강력하게 인터뷰를 거부하면서였다. 탈북자 최정화는 자신들의 고난했던 지난 삶이 너무 험하게 다뤄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구자에게 분노감을 드러냈다.

사실 AB 지역까지 탈북자를 만나러 갔던 연구자에게 있어서 지척에 탈북자가 살고 있다는 것은 더 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끼게 하였다. 나중에 탈북자 최정화와 친해진 다음 들은 바로는 이날 연구자가 인터뷰를 하지 못하고 돌아간 다음 심준모 선교사는 탈북자 최정화를 아주 강하게 꾸짖었고 이로 인하여 탈북자 최정화는 깊은 반감과 상처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상당 시간 최정화는 연구자를 불편하게 대했는데 그때는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했다. 실제로 이들 가족과의 만남이 시작되던 첫 시기는 하루하루가 연구자에게 감정적으로 소화하기 힘든 순간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계와 배제, 부딪침을 겪으며 연구자는 이들이 북한과 중국에서 어떤 생활을 하였는지 궁금해지게 되었다. 북한자유주간 동안 이들과 한 방에서 지내면서 또 이들의 간증을 녹화하고 뒷일을 돌봐주면서 연구자는 조금씩이나마 이들의 세계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들과의 만남을 정리하면서 연구자는 두 번째 조사에서 AB 지역 탈북자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부각되었던 난민 신분 보장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고 세 번째 조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되었다.

세 번째 조사에서는 의외의 성과가 많았다. 외부자의 입장에서는 찾기 힘든 고은별 목사를 만난 일이며 고은별 목사의 교회에서 2006년 주기훈 목사가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데리고 들어온 탈북자 지극한을 만난 일이며 또 두 번째 조사 때 몰랐던 탈북자지원위원회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박혜빈 변호사를 만난 일은 지난 일 년 동안 탈북자 변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혼란스러운 채 얼쩡거리며 보내던 시간들을 마무리지으며 얻은 값진 소득이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탈북자 금잔디가 연구자를 향해 마음을 열었다는 것이 가장 기뻐다.

세 번째 조사를 마치고 연구자는 몇 가지 과제를 안고 돌아왔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과제의 첫 번째 작업으로 탈북자들이 왜 미국까지 오게 되었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리하고 분석한 것이다. 이들이 추구하는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미국이 그러한 소망을 충족시켜 주고 있는가? 아니 이곳에서 그러한 꿈을 달성할 수 있는가?

#### 4. 미국 거주 탈북자 개관<sup>9)</sup>

9) 본 연구에 나오는 탈북자와 탈북지원단체 및 관계자의 성명은 가명을 사용하였다.

2008년 현재 미국의 탈북자는 대략 2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sup>10)</sup> 1990년대 중반부터 디펜스 포럼의 수잔 솔티는 한국에서 북한의 현실을 증언할 탈북자들을 미국으로 초청하였다. 탈북자 KC, A, Y 등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이러한 루트를 통하여 70여명의 탈북자가 미국의회에 초청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그 수는 아주 적었다.

강산이 미국으로 이주한 2002년에는 AB 지역에서 탈북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sup>11)</sup> 2003년에 뉴욕의 S 목사의 초청으로 탈북자 KY씨가 미국에 들어고 그는 다시 AB 지역에 있는 한인타운으로 들어왔다. 그는 한국에서 알고 지내던 탈북자 S가 미국에 들어오고 싶어 하자 그를 초청하여 AB 지역에 정착시켜 자신의 일을 돕게 했다.

2004년 북한인권법이 발효되면서 한국에 거주하던 많은 탈북자들이 관광 비자를 이용하여 또는 캐나다 혹은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왔다. 이들 가운데는 국경에서 망명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sup>12)</sup> 주기훈 목사가 이끄는 탈북자가 2006년 처음으로 난민 지위를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왔다. 6명의 탈북자가 난민정착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 사회 적응을 시작하였다. 한인 교회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미국 난민 프로그램을 따르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두 명의 탈북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탈북자는 한인 교회가 이들의 정착과 적응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한인 교회와 탈북자 모두에게 힘든 시기였다.<sup>13)</sup>

난민 신분으로 16명의 탈북자가 더 들어왔고 지극한도 이때 같이 들어왔다. 그 이후 공식적으로 제3국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탈북자 수는 정체되었다. 태국 등지에서 초조하게 미국행을 기다리던 탈북자들과 이들의 이주 수속을 담당하던 교회 관계자들의 절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2008년 초가 되어서야 탈북자의 미국 이주가 다시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2004년 북한인권법 발효 이후에 AB 지역으로 이주한 탈북자들은 사비를 들여 망명신청을 했다. 그러나 이들의 망명 신청 소송은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오히려 한국 시민권을 가진 탈북자는 북한인권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이 나왔다. 한인 교회들은 미국의 발표에 따라 망명 신청 탈북자들을 대했다. 미국 거주 탈북자의 위치는 더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들은 미국 사회로부터도 또 한인 사회로부터도 외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sup>14)</sup>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망명신청 과정은 누구보다도 탈북자에게 고통이었다. 이

---

10) 박혜빈 변호사 인터뷰 가운데서

11) 탈북자가 미국에 들어온 것을 본 적이 없는 교포들은 조선족이 아니냐? 어떻게 탈북자가 미국까지 올 수 있냐? 하면서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고 한다.

12) NGO D 소장은 국경에서 망명 신청을 한 탈북자의 딱한 형편을 듣고 통역, 변호사, 옥바라지 등을 돕다가 본격적으로 탈북자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한다. (D 소장 인터뷰에서)

13) 이들은 입에 고기를 피 잡아 달라는 자세였어요. 이들의 인성은 완전히 파괴되어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면 안되요.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상적인 여자들의 대화가 아니에요. 아무리 난잡한 영화를 만들어도 그렇게는 안만들 겁니다. 수치심도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사람을 믿질 않아요. 오히려 미국 프로그램을 하기로 하고 이곳으로 오지 않은 탈북자가 더 잘 적응하고 있어요. 자기 앞길에 대해 구상하고 빨리 자립하고 있어요. 시행착오지요. (송영철 목사 인터뷰)

14) 비공식 탈북자와는 관계하지 않아요. 교회는 불법적인 부분은 관계안합니다.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차라리 50불을 도와주세요 하면 구제해줄 수 있어요. 7-8분이 찾아왔어요. 통곡 기도 운동 하니까 합법적인 신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달라고 하더군요. 개인으로는 할 수 있지만 교회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불법으로 한국에서 왔습니다. 안하는 이유는 이들을 추방하면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중국에 있던 탈북자는 추방하면 북한으로 갑니다. 북한과 미국은 수교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 온 사람은 보호해야지요. 돌아가면 죽으니깐. 하지만 한국국적은 합법 신분으로 살 수 있습니다. 지가 안하는 거지. DHMK는 안합니다. 우리의 원칙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송영철 목사 인터뷰에서)

들 가운데는 이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들의 소송 과정을 지켜보던 한인 변호사들이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함께 AB 지역 탈북자를 지원하는 모임을 결성하였다.<sup>15)</sup> 이 지역 탈북자의 신분 문제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생겼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 이었다. 강산에 따르면 이 지역으로 이주한 이후 두 번이나 자생적인 단체를 만들어 탈북자들을 위한 활동을 해보려 하였지만 그 운영 결과는 참담하였다. 단결과 발전을 도모하였으나 오히려 탈북자 사이에 더 깊은 반목과 불신을 가져오게 되었고 탈북자들은 스스로 단체를 운영할 수 없다는 비관적인 생각까지 갖게 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인 변호사의 모임이 이들을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 지역 탈북자에게 신선한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미국 내 탈북자들은 AB 지역으로 모여든다. 이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한인 타운이 이들에게 보다 유연한 생존 환경을 제공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난민으로 들어온 강산이나 또 초청으로 들어와 망명 신청을 한 양수연, 조진형이 이 지역으로 들어온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이다.<sup>16)</sup> SCNKAS에서는 앞으로 이만 명 정도의 탈북자가 미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가 만 사천여명이 되고 중국 등지에 나와 있는 탈북자가 30만-40만이라고 할 때 이만 명의 탈북자는 현재 북한을 떠나 떠돌고 있는 탈북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이다. 그러나 보다 본격적으로 진행될 탈북자 이주에 앞서서 먼저 현재 AB 지역의 70여명의 탈북자, 또 미국 전역의 200여명의 탈북자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기대하고 미국으로 왔으며 또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11명의 탈북자는 미국 거주 탈북자 일반의 모습으로 확장하기에 무리가 있는 규모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보다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기에 앞서서 미국 거주 탈북자에 관한 개략적인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본 연구 사례의 의미를 두고자 한다.

## 인터뷰 대상자

### 탈북자

번호	성명	나이	성별	탈북지	혼인	직업	거주지	북한가족	현재가족	신분
1	강산	44	남	러시아	재혼	주차	AB	있음	배우자	망명신청
2	금잔디	43	여	중국	재혼	식당	AB	없음	배우자	망명신청
3	김동희 한연주	*17)	여		이혼	식당/ 예술단	한국		아들/아들	대한민국
4	양수연	53	여	중국	재혼	예술단	AB	없음	배우자/아들	망명신청
5	조진형	46	남	중국	재혼	예술단	AB	아들	배우자	망명신청
6	이신학	40?	남	중국	미혼	학생	AB		없음	망명신청

15) 탈북망명자지원회(SCNKAS: support committee for north korean asylum seekers)

16) 전에 있던 곳에서는 말이 통해야지. 언어가 안되니까 이곳으로 왔지요. (탈북자 강산1 인터뷰에서) 아무래도 한인 타운이 사업을 벌이기가 수월할 것 같아서 이쪽으로 왔어요. (탈북자 양수연 인터뷰에서)

7	은하계 은하수	21/ 16	여 여	중국 중국	미혼 미혼	학생 학생	EF	없음	어머니/ 자매	난민
8	박학성	19	남	중국	미혼	학생	AB	없음	어머니	망명신청
9	최정화	49	여	중국	사별	주부	EF	없음	딸	난민
10	허경순 정미희	18 22	여 여	 중국	미혼 미혼	학생 학생	AB CD	없음 없음	부모, 동생 부모, 동생	망명신청 대한민국
11	지극한	55	남	중국	*18)	경비	AB	행방불명	없음	난민

#### NGO 및 교회 관계자

번호	성명	직업	활동지역	활동내용	기타
A	고은별	목사	AB	탈북자 교회 사역	
B	정덕형	선교사	CD-AB	세계 선교회/ 탈북자 지원	
C	주기훈	목사	한국-미국	탈북자 교회 사역	
D	김길순	NGO	EF	이민자 정착 지원 활동	
E	김준모	목사	EF	탈북자 선교/ 탈북자 지원	
F	고상혁	목사	한국	세계 선교회/ 탈북자 교회 지원	
G	박혜빈	변호사	AB	탈북자 망명 소송 담당	
H	송영철	목사	AB	탈북 난민 지원/ 탈북자 지원 조직	

#### 5. 미국 이주의 배경

##### (1) 이주의 원인

17) 빈칸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이다.

18) 지극한의 경우 현재의 혼인 관계가 아주 애매하다. 배우자가 행방불명된 후 중국에서 재혼을 했으나 지극한 씨가 미국으로 들어온 이후 중국에 남아 지극한의 연락을 기다리던 아내가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 지극한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 아내는 지극한에게 미국에서 새출발할 것을 권하고 있다.

강산은 자신의 북한생활과 러시아생활에 대해 묻는 것을 아주 싫어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이 주제로 화제를 돌리면 자리에서 일어나 갈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하였다. 그가 어렵사리 털어놓은 이야기 속에서 연구자는 미국 이주의 근본적 원인은 사실상 북한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항상 북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위에서 아 하면 아래까지 아 하고.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불만이 있었어요. 부모가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간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자식들과 굉장히 가까이 지냈어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었는데 스스로 나를 만든 거지. 너무 속고 산 게 한이 맺혀서. 북한체제에 환멸을 느껴서. 북한체제에 마음을 담고 충성할 이유가 없다고. 속고만 살았다는 것이. 북한에 부모 형제가 있지만 진실치 못한 체제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개념 새기며 자본주의 체제가 더 현명한 체제라고 생각하고 탈북을 결심했어요. 해외에 나온 길에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대한민국 합동조사본부에서 언어폭력을 당했고 그 사회에 들어간 날부터 인권유린을 당했어요. 들어오자마자 막말하고 두들겨 패고 신분도 없고 죽어도 아무도 모른다는 공갈협박을 받았어요. 인간대접이란 걸 요만큼도 안했어. 가장 밑바닥에 놓고. 북한체제가 싫어서 온 사람에게 똑같은 수준으로 대했어. 처음부터 대한민국에 대한 환멸, 혐오감을 갖게 해줬고 과정 과정이 반복되면서 악몽이 되살아났어요. 강연회 갔다 오면 협박 분위기를 조성했어요. 그 사회에서 살면서 두려움이 많았어요. 북한과 남한이 가까워질수록 어려워지는 건 우리,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이거지. 우리 같은 사람을 더 가까이 포섭하는 대신 북한 주민을 악몽의 구렁텅이에 넣은 사람과 손잡고 남한에서 김정일 비방했다가 사살당했어요. 굉장히 불안하고 악몽 같은 꿈을 꾸고 실향민이 남한에서 살다가 욕이오 터져서 미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남한 땅에 있어야 할 이유도 없고 한반도 땅에 있기 싫다고. 안아주고 기댈 나라는 미국 밖에 없어요. 북한을 다스릴 나라는 미국뿐이에요.” (강산)

강산의 북한 신분은 대기근으로 고생할 그런 신분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어려서부터 확일적이고 전체적인 북한체제를 힘들어 했으며 성장하여 다른 환경에서 북한체제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깊은 환멸을 느끼게 되었다. 그에게는 북한을 떠나 남한으로 올 때 북한의 체제와 사회에 대한 부정과 비판 의식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그가 그리던 삶의 방식은 남한에서도 실현하기가 어려웠다.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싶었던 강산에게 환경은 그렇지 않았다. 여기서 연구자는 강산의 이런 진술이 현재 그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종합적으로 재해석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강산은 금잔디와 결혼한 후 경제 현실에서 새로운 장벽을 체험하게 된다.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었지만 강산이 자금을 융통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한국에는 해외여행의 자유가 없고 여권을 신청해도 북한사람은 신원조회를 하고 한달이나 걸려요. 북한사람은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어서 남한으로 들어와도 색안경을 쓰고 봅니다. 자기 국민으로 보지 않아요... 은행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탈북자라는 것을 알면 금융대출이 안되요. 신용이 없어서지요. 신원보증 서줄 사람도 없고 취약점이 많아요...호적등본에는 북한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원 출신은 주민등록 끝자리 세자리가 다 똑같아요. 중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내주지 않아요. 알아버렸어요.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가진 사람을 공평하게 볼 때 이것은 불공정한 거예요.” (강산)

비즈니스에서 겪는 어려움은 자금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자본주의적 사업 운영 방식, 노동의 의미, 노동방식, 노동법 모든 것이 북한과 달랐다. 이미 사회주의적 가치 구조를 내면화시키고 있는 강산이 남한사회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과정은 너무나 스트레스가 되어 병이 날 정도였다.

“북한은 공급제, 물건이 풍요롭지 않아. 자본주의는 내가 번대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우리는 공급제도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없어. 배급제라 물건 사는 방식을 잘 모르다구. 물건과 돈 개념이 없어. 또 문화적으로도 달라. 음악이 틀리고 적응을 못 해. 한국 가요라도 무슨 의미 인지 몰라. 한국사람 먹는 밥 가짓수도 모르고 에피소드가 엄청나게 많아. 노동현장도 마찬가지로야. 사회주의 노동법과 자본주의 노동법이 틀려요. 적응을 못해요. 북한은 8시간 노동제야. 이 안에 하루 맡겨진 거 해. 한 시간 하다가도 쉬고. 자본주의는 쉬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계속 쉬지 않고 일해야 해. 북한은 생산력 의욕이 없어지고 그런 개념을 모른다고. 노동도 적극적으로 하기 싫다고 적응하기가 힘들다구. 정착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아.” (강산)

“남한과 북한은 체제가 이질화된 잠재적인 게 머리에 들어 있고 성숙이 다 되어서 들어온 사람은 힘들어 해요 십대만 되어도 힘들어하는데 자본주의 한국 사람도 정착 절대로 못해요. 모든 게 새로워 보이고 환경이 달라 보이고 북한에서 정신적 스트레스 받다가 줄여서 살다가 남한에 와서 정신적 타격을 받아서 몸에 이상이 오기도 하고 그래요.” (강산)

경제적 문화적 자원이 부족하였던 강산이 무엇인가 포부를 펼치기에 그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남한사회에서 느끼는 이질성과 현실적인 장벽, 남북 화해의 분위기가 만드는 공포 속에서 강산은 금잔디와 함께 미국행을 결심하였다고 생각된다. 강산은 배고픔에서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갈망하며 패기에 찬 열망으로 북한을 박차고 나왔다. 삼십대 중반에 가정을 이루며 강산은 보다 안정되고 자유로운 삶을 미국에서 새롭게 만들어보고 싶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진형이 탈북한 이유는 강산과 달랐다. 조진형은 국군포로병의 아들로 그의 어린 시절은 국군포로병의 자식이라는 굴레로 얼룩져 있었다. 조진형은 간증에서 군대에서 돌아온 후 먹을 것이 없어 중국에 다니며 식량을 날라다 먹다가 발각이 되어 탈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두 번째 조사에서 그는 옆집에서 고발하여 보위부 사무실에 끌려가 취조를 받던 중에 총살시킨다는 말을 듣고 탈북 하였다고 진술했다. 2001 년에 한국에 들어왔으니 그가 탈출한 시기는 대략 1993년경으로 대기근이 막 시작된 시기이다. 그의 진술을 통해 본다면 이 시기에 북한은 이미 식량 부족 문제가 퍼져 있었으나 이에 대한 통제 시스템이 붕괴될 정도로 까지 진행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오히려 더 강력한 처벌 방식을 사용하여 그러한 통제 붕괴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했다고 생각된다.

조진형은 대기근이 막 시작되는 시기에 북한을 탈출하였다. 그러나 대기근이 북한 탈출을

축발시키는 환경을 마련했을지라도 기근 그 자체가 바로 탈북을 결행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분석된다. 즉, 국군포로병의 아들로 북한사회에서 그가 겪었을 불이익과 고통은 더할 수 없었겠지만 북한사회의 규율이 그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탈출을 결심했다는 것이다. 즉 북한사회가 그에게 용인해주던 최소한의 공간마저 무너지게 되자 탈출을 감행하였다는 것이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중국으로 탈출한 그는 중국에서 남한에 대해 알게 되어 이주를 결심하게 된다. 그는 북송되지 않기 위하여 조선족 주인 밑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했다. 팔년 동안 북송되지 않고 지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삶에는 희망이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는 사실 그의 아버지는 남한 사람이었다.

“중국에서 팔년 고생했어요. 중국에서 살려고 왔지요. 남한 갈 생각은 못했어요. 중국에 와서 남한 방송을 듣고 사람을 만나면서 때늦게 느꼈어요. 남한에 가서 살고 싶다고.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강을 넘어 들어갔어요. 한국영사관으로 들어갔는데 안된다고 해서 캄보디아 국경을 넘었어요. 국경 수비대에게 잡혔어요. 일주일 후에 태국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조진형)

그는 탈출에 성공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도중에 잡혀서 북송되는 것은 그에게 죽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남한으로 들어와 양수연과 결혼하게 된다. 양수연이 북한을 탈출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여럿이다. 양수연 자신은 정보기관에서 비밀리에 중국을 오가며 활동하다가 어떤 경제 사건에 연루되면서 모함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부모가 남한 출신이 그로서는 더 이상 북한사회에서 지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중국으로 탈출했다고 말한다.

양수연의 사례도 조진형의 경우처럼 그가 숙청되지 않고 북한사회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북한을 탈출했다. 북한을 탈출할 때 양수연은 북한에 남편과 아들이 있었다. 양수연이 이러한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중국으로 갈 수 뿐이 없었던 것은 자신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양수연의 남한으로 갈 수 밖에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 올 결심을 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양수연은 가족과 헤어져 홀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조진형과 결혼을 하게 된다. 양수연은 서울에 순대 식당을 열어 학성을 북한에서 데려 올 자금을 마련했다. 학성이 한국으로 온 후 양수연은 미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초청받게 되었다. 처음 미국에 온 양수연 부부는 아주 힘든 생활을 했다. 더구나 증언자 자격으로 와서 갑자기 영구 거주로 바뀌게 된 양수연 부부는 한국생활을 정리하지도 못하고 아무 준비도 없이 미국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더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보인다. 가까스로 만난 아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고통이 더 컸으리라 보인다.

“처음 와서 못살겠더라구요. 차 없지요. 죽겠더라구요. 목적하고 오지 않아서 한국에 있는 아들은 빨리 엄마 오라고 하지. 거의 일년은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차 구하고 여권 기각 당하고 남한정부랑 싸우는데 싸움꾼으로 소문났어요. 여기 올 때 국정원에서 도장 찍고 왔거든요. 미국 가서 북한 비난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내가 했거든. 북한 나쁘다고 김정일 나쁘다고 막 떠들고 다녔거든. 그러니 나 들어오게 하려고 여권을 연장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남한에서 정착하기 어려워요. 모든 피해자는 탈북자예요. 탈북자가 가장 가고 싶어 하

는 곳은 미국, 일본, 영국이에요. 한국에서의 문제점은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설움이 날 때가 많아요. 아이가 학교에 갈 때 보니까 해외동포로 분류되어 있어요. 항의를 하니까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대요.” (양수연)

양수연의 이 말을 통해 양수연이 갖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영구 거주하려고 마음 먹은 속내를 짐작해볼 수 있다. 양수연은 의회 증인으로 초청되어 들어와 교회를 돌아다니며 간증을 다니다가 자본주의적 풍요와 자유를 누리고 있는 미국사회의 매력에 눈을 뜨게 되었다고 보인다. 특히 양수연은 북한에서 데려온 아들이 남한에서 학교를 다니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지켜봤으며 아들의 장래를 위하여 미국에 거주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미국 체류를 연장하려던 이들의 시도가 무산되자 양수연은 망명신청이라는 방법으로 미국에 계속 체류했다. 그리고 아들을 미국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것은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브로커에게 거액을 돈을 준 탈북 청소년 허경순의 부모의 경우도 자녀들의 교육과 장래가 이주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양수연은 순대 식당을 다시 열 계획이고 또 처음 정착을 하였던 CD 지역에서 자금을 대주겠다는 제안도 있었지만 학성의 졸업 때까지 AB 지역에 정착하기로 하였다. 학성의 나이가 미국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연령에 해당하여 다시 학교를 바꿀 경우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너무나 좋은 천국에 와서 그때를 돌아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요 북한 정권이라는 울타리를 생각해 볼 때 독재자들만이 출신성분이 좋은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걸 다시금 느꼈어요. 한국에서도 살고 미국에서도 살고 있는데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식생활 걱정이 없어요. 모든 활동 생활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살아 있는 것이. 미국 의 많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북한에서 있었으면 죽었을까 굶주려서 정부의 버림을 받은 사람으로 굴러 떨어져서. 미국에 와서 농사짓는 것을 보면 농장밭에 사람이 없어요. 기계가 농사를 짓고 비행기로 약을 뿌려 벌레를 다 잡고 저기 먼 플로리다부터 놀스캐롤라이나 다 차로 다녀요. 내가 너무 좋은 세상에 와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양수연)

최정화 가족의 경우도 대기근이 북한 탈출의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지만 바로 대기근이 탈출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았다. 최정화의 가족은 대기근 때 깊은 산골로 들어가 기근을 피해 보고자 하였다. 은하수 자매는 학교 문턱도 가지 못하고 나물을 뜯어 팔아 생계를 도왔다. 최정화 부부는 북한 국경을 넘어 먹을 것을 구해오다가 수비대에게 잡혀 고문을 받게 되었고 남편은 수용소에서 죽고 최정화만 간신히 풀려나게 되었다. 굶주림에 견디지 못한 최정화의 어머니마저 세상을 뜨자 최정화는 큰 딸에 의지하여 중국으로 탈출하였다.

대기근이 닥쳤을 때 이들은 북한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기 위한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한다. 그러나 더 이상의 방법을 찾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북한 사회를 떠나게 된다. 이들이 막내 동생을 북한에 남겨둔 채 떠나지 않았더라면 어린 나이에 북한을 떠난 은하수 자매는 중국사회에 깊이 잠겨 중국인으로 동화되어 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북한에 남아 있는 동생과 행방불명된 언니를 찾아야한다는 의식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의식은 심리적 의식적 차원에서 여전히 이들을 북한사회와 동질적인 유대로 연결시켜 주었다고 생각된다. 이들이 북한을 떠난 것은 생존을 위한 것이었으며 북한사회의 내적 원리들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신학의 경우는 굶주림에서 시작된 북한사회에 대한 극심한 환멸이 북한을 떠나게 했다고 보인다. 그는 굶주림의 체험이 어떤 식으로 사회체제에 대한 환멸로 발전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정서가 없었다면 그는 결코 북한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나도 굶어 죽게 되어 그 땅을 떠났어요. 침도 그 땅을 향해 뱉고 싶지 않았어요. 중국에서 으스스한 데 가서 먹고 살다 죽으면 행복이다 그래서 떠났어요.” (이신학)

그는 중국에서 한국인 선교사를 통해 하느님을 만났다. 그리고 훈련을 받고 파송되어 그도 다시 학생을 모집하여 교육 시켰다. 2001년 사역장이 발각되며 잡혀 복송되었지만 그는 다시 북한을 탈출하였다. 이때 주기훈 목사를 만나 한국으로 들어온 이신학은 대학에 들어가 신학을 공부했다. 그는 탈북자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다. 그가 미국까지 오게 된 것은 신학공부를 계속하여 하느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즉, 한국에서 신학공부를 계속 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안전하다고 생각한 미국까지 와서 신학공부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사람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면 불살라들이겠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북한 형제들을 대표하는 교회, 탈북자를 대변해서 세워지는 교회를 세우려는데 탈북자 이름 팔아서 교회를 세우지 말라는 거지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돌에 맞아 죽는 거, 불에 타 죽는 거 각오 했으니까 하리라 하고 담임으로 사역을 맡았어요. 4월 중순쯤 교회에서 자는데 전화 와서 야 개새끼 당장 꺼져라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는데 당황스러웠지요. 맞아 죽으면 순교되는데 그냥 잤지요. 무슨 일이 없었는데 6월 달인가 학교 갔다 오는데 본능적으로 쫓겨 다니던 사람이라 예감이 빨라요. 맞은편에서 주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북한 아이 비슷했어요. 서너번 갈아타는데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심상치 않은 놈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때부터 망명에 대해 생각하며 사역을 그만두었어요.”

이신학은 탈북자의 신분이 상당히 불안정한 남한 땅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다. 확실한 신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신분이 보장되는 곳으로, 정부가 돌리 갈라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남한을 떠나자고 생각했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 수는 없다고 스스로 이행을 택했다. 그는 2005년 9월 캐나다로 와서 망명신청을 했다. 미국으로 망명할 생각을 하면서 캐나다로 들어간 것은 하느님 믿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하기가 그래서였다고 한다.

“자란 조국, 부모, 나의 혈육 버리고 떠났다는 죄의식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할아버지 성분 때문에 정치 쪽으로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탈북 했으니까 온 집안 식구에게 사회적 혜택까지 피해를 주게 되었어요. 남겨진 사람들에게 죄의식이 있어요.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이 더러운 목숨이라도 살아야지요. 비열함에도 살아야지요. 그래서 한국을 떠나야 했어요. 미국에서 온전한 국적 있어야 한국 와서 중국에 가족 만나러 가든가 조선족 신세진 것 같으려 가든가.” (이신학)

“하나님 믿는 사람이 불법으로 들어가기가 그래서 캐나다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니던 교회에서 미국으로 저리 가는 게 낫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밀입국을 했

어요. 폭포를 철길로 밤에 넘어서 CD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망명신청을 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 다시 AB 지역으로 왔어요. 북한사람들이 많아서 쉽게 신청을 했어요. 지금 인터뷰 끝나고 working form 기다리고 있어요.” (이신학)

북한사회에 대한 환멸로 그곳을 떠나기 했지만 이신학의 마음속에는 남겨진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죄의식이 늘 마음을 누르고 있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서든 다시 이들을 만나 그가 만난 하느님을 전하고 싶을 열망이 더 강렬하게 그를 불태우고 있었다고 보인다. 어떻게든 살아남아 빛을 진 가족들에게 하느님을 전해야겠다는 열망이 이신학을 미국으로 이주하게 한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보인다.

최정화 가족의 경우도 중국에서의 신앙생활이 미국 이주로 연결된 사례이다. 최정화 가족은 중국에서 김준모 선교사를 만났다. 은하수 자매는 김준모 선교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들은 유창한 중국어 실력으로 탈북자를 중국 국경까지 이동시키는 일을 도왔다. 결국 은하수 자매는 이 일이 발각되면서 복송을 당하게 되었고 이들의 신변을 걱정한 김준모 선교사에 의해 난민 자격을 얻어 미국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지극한의 경우도 중국에서 이기훈 목사를 만나 난민 자격을 얻어 미국으로 들어온 사례이다. 이신학도 이기훈 목사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온 경우지만 지극한의 경우는 한국으로 가지 못하고 중국에 머물러 있다가 미국으로 들어온 경우이다.

“ 한국에서 안받겠다고 하니까. 97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 가려고 중국 영사관 다 다녔어요. 중국돈 삼백원 주면서 가라고 정부에서 받지 말라고 하는데 나를 받으면 밥통 떨어진다. 2004년 인권법이 되어 난민 받는다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에 가서 신청하고 왔어요. 같이 6명이 왔어요.” (지극한)

기근으로 가족을 모두 잃고 중국으로 탈출한 지극한은 한번 복송되었다가 탈출한 후 조선족 여성을 만나 복송을 다시 당하지 않고 중국생활을 했다. 안정된 생활을 하던 그가 왜 미국행을 결심했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다. 당시 이기훈 목사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미국에 이주시키는 작업을 추진하면서 지극한을 이 팀에 넣고 싶어한 것이라고 추측될 뿐이다. 그의 미국 이주는 사실 그들 부부의 운명을 갈라놓는 선이 되었다. 그의 아내는 지극한이 떠난 후 불안과 외로움으로 방황을 하다가 자동차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이제 불구의 몸으로 미국에 들어와 지극한의 짐이 되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과 다른 사례로 김동희와 한연주를 볼 수 있다. 이들은 양수연이 조직한 북한예술단원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일시 들어온 사례이다. 이들은 미국 도시를 돌면서 공연하고 공연 대가를 받은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 이들은 미국에서 공연을 하고 나면 한국에서 단기간에 가질 수 없는 목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또 들어오고 싶어 한다. 한연주의 경우는 미국에 머무는 동안 영구적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방법에 관심이 많았다. 이혼하여 아들 한 명과 함께 지내고 있는 한연주는 미국에서 아이 교육 시키는 것에 대해 많이 물어봤다. 한연주는 결혼을 통해 미국에 들어오는 것도 관심을 보였다.

정미희의 경우는 어학연수 방식으로 미국에 들어온 사례이다. 중국에서 가족이 함께 한국으로 들어온 정미희는 탈북자 지원 방식에 따라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정미희가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웠던 가장 큰 요인은 영어였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에서 영어 보충 수업을 받기도 했지만 학교 교과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미희를 괴

롭힌 또 다른 것은 학업을 따라가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료들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정미희는 여자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노트를 빌려달라거나 강의 시간에 모르는 것을 물어보았을 때 동료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한다. 당시 탈북자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정미희는 고상혁 목사의 도움을 받아 휴학을 하고 CD 지역으로 어학연수를 떠날 결심을 하게 된다. 정미희는 매일 샵에 다니며 어학원을 계속 다녔다. 정미희가 어학연수를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계속 체류를 연장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정미희에게 미국으로 가며 이천만원을 모아서 돌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의 언니도 불법체류자로 일본에 갔지만 지금 기반을 잡았다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했다.

11명의 사례를 통해 볼 때 탈북자의 미국 이주 원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 1) 남한에서 혹은 중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미국에서라면 신분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것 같다./ 자유로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 2)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차별을 겪었다./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이다/ 풍요롭고 발전한 사회이다
- 3) 같은 동포로 인정해주지 않으며 왕따를 시킨다./ 이민국가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는다
- 4) 자녀 혹은 자신의 교육과 장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영어를 배울 수 있다
- 5) 한국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북한인권법에서 받아준다고 했다

탈북자들은 북한의 대기근 자체로 인하여 직면하게 된 생존의 위기 자체에서 탈북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기존에 준수되던 북한사회의 원칙을 넘나들며 개별적으로 강구하던 생존의 해결책들이 북한당국의 통치 원칙과 공개적으로 부딪치면서 사회적 생존자체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게 되었을 때 탈북을 감행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남한에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는 원인 분석에도 적용될 수 있는 틀이라고 생각된다. 즉, 이들이 남한사회에서 갖가지 어려움과 장벽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로 인하여 미국 이주 자체가 추진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합법과 비합법의 선을 넘나들며 개별적으로 자신의 생존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을 것이다. 이들에게는 생존을 담보해줄 수 있다면 가치와 도덕은 그들의 선택을 합리화하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19)</sup> 그렇다면 이들이 결정적으로 이주를 결심하게 하는 외적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자가 인터뷰한 탈북자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신분상의 위협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다. 이들은 북한 정권으로뿐 아니라 남한 정권으로부터도 신분상의 위협을 느꼈다고 이야기한다. 어떻게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 이들을 받아들여준 남한 정권에서도 신분상의 위협을 느꼈다고 하는가? 연구자는 여기에서 햇볕정책으로 이루어진 한반도 화해 무드가 탈북자들에게 어떤 심리적 압박감을 가져왔는가에 관하여 분석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빚어진 이들의 비극적인 위치에 대한 분석이 미국 거주 탈북자에 관한 일반적 개관이라는 논문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논의하기로 하고 본 논문에서는 탈북자 개개인이 남한사회에서 지고 있던 적응의 짐들이 남한정부의 대북정책이

19) 강도가 칼을 들고 내놓으라 사람은 하나 밖에 없는 목숨이에요. 나라도 같아요. 살고 볼 일이지요. (지극한 인터뷰에서) 난희씨는 몰라. 사회생활 안해 봐서 그런 거를 이해 못해. 손님들이랑 같이 노래방에 나가서 신나게 흔들고 노래 부르고 들어오기도 해. 우리 신랑 좋은 점 가운데 하나는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야. (금잔디 인터뷰에서) 옥수수 한봉다리 먹기 위해 자기 눈앞에서 마누라와 성관계하게 해요. 자기 마누라가 선택되었으니까 lucky 한거야. 굶어죽는 사람 많은데 선택되어서. (송영철 목사 인터뷰에서)

만드는 분위기와 결합하면서 미국 이주라는 카드를 잡게 되었다는 점만을 언급하고 싶다.

이미 청장년기가 되어서 넘어 온 탈북자에게 남한사회 정착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다. 더구나 물리적 세계에 적응하여 생존의 토대를 만드는 일조차 어려운 이들에게 현 상황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불안은 역으로 이질적인 물리적 세계를 살아가며 겪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할 여력을 삼켜버린다. 생존의 안위를 확신하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신경증적인 불안을 겪는다는 것은 심리적 세계와 물리적 현실의 악순환 속에서 탈북자를 내적으로 외적으로 소진시켜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한반도에 퍼지는 대북 화해 분위기는 남한 거주 탈북자들을 내적으로 옥죄는 족쇄가 된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위기감에서 자신들을 보호해줄 은신처를 찾았고 그곳이 북한인권법의 제정과 함께 미국으로 향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연구자는 이들이 미국 이주로서 남한사회에서 겪는 자신의 복합적인 한계 상황이 어떤 즉각적인 해결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아서 미국행을 감행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제공하는 이주 정착의 혜택을 누리고 살았으며 중국에서의 생활 경험에 미루어 언어와 문화가 다른 미국사회에서 어떤 초기 경험을 하게 될지 짐작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은 목젓까지 차오른 숨막힘을 뚫을 돌파구가 필요했고 또 이미 중국에서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주를 결심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들에게는 현재는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이 고생 뒤에 더 나은 미래가 올 것이라는 희망이 필요했던 것이다. 연구자는 이들이 미국에서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이들의 이주경로와 이주유형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 (2) 이주 경로와 이주 유형

### 1) 이주 경로

- a) 북한- 중국- 한국- 미국
- b) 북한- 중국- 미국
- c) 북한- 중국- 제3국- 한국- 미국
- d) 북한- 러시아- 한국- 미국
- e) 북한- 중국- 한국- 미국- 한국

탈북자들은 대부분 중국에 인접한 북한 국경을 넘어 탈출했다. 그리고 길게는 8년 짧게는 한두 달을 중국에 체류한 후 한국으로 이주하였다. 중국에서 직접 들어오는 것이 어려울 경우 제3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들어왔다. 이들이 중국 등지에서 미국으로 직접 들어간 경우는 모두 선교사를 통해서이다. 이들이 중국을 떠나 미국으로 들어온 것이 절대 필요한 것이었는가는 이론의 여지를 남긴다. 그러나 중국에서 이들의 신분이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탈북자들은 그러한 부조리함을 털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탈북 청소년의 미국행은 또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유학, 전문 기술인의 신분을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젊은 탈북 청소년들을 미국으로 보내 북한 선교의 리더로 키우려는 세계 선교회의 선교 전략도 여기에 한 몫을 하고 있다. 북한 선교를 위한 선교 전략과 미국사회에 대한 탈북 청소년들의 전망이 결합하며 앞으로 한국 거주 탈북 청소년의 미국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직면해 있던 현재의 한계 상황을 타개할 하나의 돌파구로서 미국으로의 이주를 선택했다. 이것이 그들의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적절한 길이었는지는 또 다른 논의를 남기고 있다. 여기에서 연구자는 이들이 어떤 문화적 자원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주했는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새로운 사회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은 결국 이주자가 어떤 문화적 자원을 가지고 적응을 추진해 가는가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논의로 넘어가기에 앞서 미국 거주 탈북자의 이주 유형을 정리하고자 한다.

## 2) 이주 유형

미국 거주 탈북자의 이주 유형은 먼저 영구 이주와 임시 이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강산 부부, 최정화 부부, 허경순 가족, 지극한, 이신학이 영구 이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양수연 부부는 임시 이주로 들어왔다가 영구 이주로 전환하였다. 정미희가 앞으로 임시 이주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영구 이주로 전환할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 임시 방문으로 들어왔다가 돌아간 김동희와 한연주가 영구 이주의 방법을 강구하여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 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구 이주는 대부분 가족 전체가 이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독으로 이주한 지극한 의 경우도 곧 배우자를 미국으로 불러들여 가족을 재구성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전체 가족이 함께 이주하기 어려운 경우 먼저 미국 입국이 가능한 가족원이 들어와 자리를 잡은 후 나머지 가족을 불러들이는 형태로 영구 이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미희와 이신학의 경우가 흥미로운 사례이다.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아직 없는 이들이 앞으로 어떤 이주 형태를 보여 갈지 흥미롭다.

이주 유형에 있어서 보다 문제가 되는 유형분류는 이들의 이주 후 신분에 따른 분류이다. 즉 이주 후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 이들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인권법의 효력에 힘입어 난민으로 들어오거나 유학 및 기타 합법적인 신분으로 들어오는 유형과 관광 비자 혹은 밀입국으로 들어와 거주하는 유형이다. 후자의 경우 이들은 미국에서 망명신청을 하여 난민 신분을 보장받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망명신청에 대해 미국정부는 남한 국적의 탈북자에게 절대 불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 탈북자는 남한 시민권을 가질 자격이 있어도 미국에 망명 신청 할 자격이 있다고 하는데 미국 이민국은 한국을 거친 사람들이 아니라 거치지 않은 사람들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제3국에 자리 잡고 산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특별법이 있어도 특별법 안에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민법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지요.” (박혜빈 변호사)

“이게 말이 안됩니다. 직접 오는 것도 막고 나서 무슨 얘기에요? 제3국에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지요.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남 정부에서 중국에서 오자마자 태국에서 패스포트 준다고 비행장에서 준다고 하고 비행장 영역을 떠나면 다시 압수했어요. 다른 곳을 갈까봐. 남한은 북한과 딱 붙어 있어요. 북한에서 멀리 떠나야 마음이 편하겠다고 생각하지요. 미국이 강대국이기에 때문에 미국이 해꼬지 못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미국에 온 사람은 인권법을 보고 온 것이니만큼 책임지고 돌봐야 합니다.” (박혜빈 변호사)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만들어 놓고도 남한 시민권을 가진 탈북자를 배제시키는 정책으로 선회하게 된 데는 부시정권이 초기의 대북 강경정책을 임기 중반을 넘기며 일정한 선의 포용 정책으로 바뀌게 된 것과 관련되어 있다. 부시정권은 임기 초기에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대북 강경정책을 펼쳤다. 이들은 북한주민의 대규모 탈북을 유도하여 북한정권이 내적으로 붕괴되도록 만든다는 전략을 구상하고 중국이나 몽골에 대규모 난민수용시설 건설까지 포함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하며 검토하였다. 그러나 부시정권은 장기화된 이라크전으로 형성된 미국민의 부시정권에 대한 반감과 비판, 북한정권의 항의와 미사일 발사 등 강경 대응에 부딪치면서 북한에 대한 강경노선을 일보 후퇴시켰다. 북한인권법은 표면적으로 북한의 기아와 북한정권의 인권유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지만 내면적으로 부시정권의 대북한 압박 카드의 일환으로서 추진된 측면이 강하다. 즉, 부시정권의 대북한 강경정책과 한국 교회의 북한 선교 정책이 맞아떨어지면서 북한인권법이 탄생하였다는 것이다.

부시정권의 대북 정책이 선회하면서 사실상 북한인권법이 의도한 탈북자의 미국 수용은 맥락을 상실하게 된다. 부시정권은 자국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소수의 탈북자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남한정권 및 진보적 정치인의 지속적인 항의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남한 거주 탈북자의 미국 입국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게 된 것이다. 물 밑에서 진행되는 정치적 변형을 알아채지 못한 채 남한 거주 탈북자들은 북한인권법이 쏟아내는 화려한 색채만을 바라보며 미국으로 미국으로 이주의 길을 떠났다.

난민 지위를 가지고 들어온 탈북자들이 미국의 난민 정착 프로그램의 혜택 속에서 초기 적응의 과중한 부담을 덜 수 있는 반면, 망명신청을 한 탈북자들은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며 초기 정착을 해야 하는 난관에 부딪쳐 있다.

“미국은 두 개의 북한사람을 만들고 있어요. 3국을 거친 사람은 바로 되고 한국을 거친 사람은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북한사람이지 모든 것이 북한에 있지 한국에 없어요. 한국에 부모형제가 있어요? 친인척이 있어요? 경제적인 것이 있어요? 신분보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미국에 와서 망명을 하면 최소한의 인권과 자유를 주지 않아요. 이런 법안이 있어서 결단을 내건거지 그렇게 쉽지 않다구. 마음을 흔들어 놓고 엄청난 상처를 만들어 내가고 있어요.” (강산)

현재 최정화 가족은 난민 정착 프로그램에 따라 컴퓨터와 영어를 배우고 대학에 등록하여 학교를 다니고 있다. 지극한도 이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을 받았다. 그는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아 정착 프로그램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한인 타운으로 다시 이주해왔지만 상대적으로 젊고 어린 탈북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상당 부분 소화하며 미국 주류 사회의 저변으로 동화해갈 가능성이 높다. 난민 지위를 갖지 못하고 들어 온 강산과 같은 이주 일세대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응에 힘든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이세들도 미국의 교육 프로그램의 혜택을 입으며 세대를 거듭하면서 더욱 미국의 주류 사회의 저변으로 합류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신분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국 거주 탈북자의 계층상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관찰되지는 않지만 세대가 거듭되면서 이러한 변수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직 탈북자 이주의 역사가 10년이 안되는 시점에서 이 분야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 관찰과 분석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6. 미국 생활과 적응

연구자는 탈북자의 미국 생활과 적응을 살펴봄에 있어서 이들이 어떤 적응의 문화적 자원을 가지고 이 사회로 들어오는가를 주목하고자 한다. 새로운 사회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은 결국 이주자가 어떤 문화적 자원을 가지고 적응을 추진해 가는가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의 미국 이주는 북한에서의 급박한 탈출과 달리 준비 과정을 거치며 일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내적 문화적 자원을 가지고 들어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의 적응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들의 적응에 어떤 내적 문화적 자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고 또 성공적인 적응을 위하여 어떤 문화적 자원들을 새롭게 자기화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탈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이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식이 아주 강하다. 이들에게 이 사회의 모든 것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활용될 수 있고 활용되어야 한다.

### (1) 의식주

“국제난민기구가 있어서 집도 주고 정착할 수 있는 교육 6개월 해주고 노동허가증 줘요 일할 수 있게. 가정을 이룬 사람에게는 시민 아파트 주고 직업이 없으면 식료품 사먹는 카드를 준다 말이지. 음식은 사먹으라는 거지. 집세는 자기가 벌어서 내라 난민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이천 이백 불 받아요. 이백이십 불 십일조 내고 이십 불 세금 내고 그래요.” (지극한)

“전에 있던 곳에서는 한번도 집에서 저녁을 먹지 않았어요. 다 초대 받아 가서 먹었어요.” (지극한)

난민으로 미국에 들어온 지극한은 초기 정착에 드는 비용 부담을 겪지 않고 적응했다고 할 수 있다. 지역 한인교회의 후원을 받은 지극한은 이집 저집 초대받아 다니며 탈북자로서 미국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후광을 최대한 누리고 지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일 정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북한의 대기아와 정치적 인권적 탄압에 치를 떨고 있는 보수적 한인 교회에서는 고난의 길을 넘어 미국까지 들어온 이들 탈북자에게 인도주의적인 사랑과 나눔을 보여주기에 아낌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최정화 가족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다. 최정화 가족이 EF 지역에 안착하기 전에 심준모 선교사는 아파트를 구해 놓고 기본적인 가구와 생활용품들을 갖춰두었다. 심준모 선교사가 다니고 있는 교회 자매들은 집과 교회에서 여유가 있는 물품은 어떤 것이든 이들 가족에게 가져다주었다. 이들의 북한 생활과 중국 생활에 관한 간증을 듣고 싶어 하는 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니느라 이들은 자신들의 정착 프로그램 제대로 수행할 시간적 여유조차 내기 힘들었다. 그러나 최정화 가족의 경우 지극한과는 다른 어려움이 있었다. 이들의 생활 규모가 정착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충당하기에는 너무 컸다는 것이다. 침실 두 개, 화장실 한 개, 거실로 되어 최정화씨 아파트는 980불로 이들이 받는 돈의 전부를 집세로 지불해야 했다. 전기, 텔레비전 수신료, 통신비도 내야하고 또 간증 가면 현금도 해야 하고 소소하게 필요한 물건들도 좀 사야 하는데 간증 가서 조금씩 받는 돈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다. 식품 구입할 수 있는 카드가 있지만 다른 물건은 그 카드로 살 수가 없었다. 최정화와 은하계는 일할 자리를 찾아야 했지만 잦은 간증 집회와

여행으로 고정적인 직업을 구할 수 없었다. 은하계는 답답함으로 눈물을 흘렸다.

“전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니까 돈 받기 위해서 그러는 줄 알고 힘들게 일해서 살 생각은 안하고 교회에나 붙어살려는 줄 알고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 받고 내가 할아버지에게 나 돈 받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팔아먹는 것 같아서 안좋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할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거지라서 이렇게 동냥질하는 줄 아냐? 내가 너희들 이렇게 구걸해서 돈 받아서 미국에 데려왔다. 그런데 돈 안받겠다고?” (은하계)

최정화 가족이 직면한 현실은 독자적으로 자신의 생계를 꾸려갈 주권이 없었다는 것이다. 집을 구할 때도 가구를 마련할 때도 간증 프로그램이 확정될 때도 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규모를 결정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이들이 주체적으로 생계를 해결하려고 해도 이들의 시간조차 자신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 이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대로 놔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기관을 이용하면 굳이 천불이나 되는 주거비를 지불하지 않고 몇 개월을 지낼 만한 곳을 찾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 지출을 최대한 줄이며 기본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최정화 가족은 그러한 미국 내 시설을 알지도 못했고 또 알아도 이용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심준모 선교사가 제시하는 간증 스케줄에 따라 움직여야 했고 심준모 선교사의 활동 반경 안에서 생활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최정화 가족이 심준모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들어온 순간부터 이미 이들은 심준모 선교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졌던 것이다.

이들이 직면한 경제적 딜레마는 결국 심준모 선교사가 집세를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해결되었다. 다음에 만나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묻는 연구자에게 보여준 최정화의 모습은 답답함과 분노로 고통스러워하던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니었다. 다시 최정화 가족은 열차를 타고 혹은 배를 타고 며칠씩 교회들을 돌며 길고 짧은 간증 여행을 다녔다.

최정화 가족은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현재의 조건은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이들 가족이 장기적으로 안착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지혜롭게 조화시켜 나가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들이 미국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생활을 시작하지 않을 수 있게 해준다. 이들이 교회를 통해 자신들의 사회적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고 또 이러한 지명도를 통해 경제적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또 신용도 없는 미국사회에서 이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광대한 인맥을 확보하는 것이 된다. 이들 가족은 다른 사람들이 타향에서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지는 사회적 연계망을 엄청나게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난민 지위를 갖지 못하고 들어오는 탈북자들은 이러한 보호막을 갖지 못하고 초기 적응 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 삶의 질이 대단히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처음 AB 지역으로 들어와서 민박집에서 살았는데 오자마자 민박비부터 일당부터 바가지 요금 이었어요. 일인 20불을 40불로 change 하고 한국에서 금방 왔으니까 돈을 빼오려고 하니까 계약금 건 것마저 안주고 횡설수설하고 대부분 집주인은 계약금을 돌려주려고 하지 않아요. 북한 사람이니까 생각이 인간 이하로 생각하더라구. 침례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분을 통해 미국사회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어요.” (강산)



한인 타운 안에 있는 양수연의 집은 침실 하나의 작은 원룸이었다. 그나마 강산의 집은 거실이 넓어 같은 비용으로도 집이 큰 편이었다. 이들은 모두 한인 교포가 주인으로 있는 아파트에 세 들어 살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이미 미국에 온지 여러 해가 된 것을 생각해 볼 때 초기의 생활여건은 아주 열악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신학은 AB 지역에 처음 와서 교회에 들어가 숙식을 해결했다. 이신학이 돈을 내지 않고 교회에서 기거를 하였다면<sup>20)</sup> 허경순의 부모는 교회에 이백 불을 내고 방을 빌려 아이들과 함께 살았다. 이신학은 교회에서 숙식을 제공받는 대신 매일 새벽 노숙자들에게 음식과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다.

탈북자들은 처음 미국으로 이주해 오면 아는 사람의 집에 당분간 기거하며 방을 알아보기도 한다. 정미희도 한국에서 들어간 아는 오빠 집에서 며칠 지내며 지낼 방을 알아보고 독립하였다. 이신학이 CD 지역으로 처음 미국에 들어왔을 때 그곳에 살던 양수연의 신세를 진 일이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누나, 동생 하며 친하게 지내고 있다. 이들은 비록 살고 있는 집에 방이 한 칸 밖에 없는 경우에도 자신이 돌봐줘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기꺼이 자신이 자는 방을 내주며 그를 돌본다.

고은별 목사의 교회에도 기숙할 수 있는 방이 있어 탈북자 한 가족 정도는 교회 내에서 지낼 수 있다. 지극한이 그 방을 쓰기 전에는 강산 다음으로 AB 지역에 들어온 탈북자 KY와 절친하게 지냈던 탈북자 S 가족이 지냈다고 한다. 고은별 목사는 교회로 나오며 인근 한국 마켓에 들러 여러 가지 반찬, 떡을 사가지고 와 지극한이 식사 때 먹을 수 있게 했다. 가족이 없이 단독으로 이주한 탈북자의 경우 교회는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될 거라고 생각된다.

탈북자들의 초기 정착에 교회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보인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아직 들어와 있지 않은 탈북자에게 교회는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있는 만능상자와 같다고 여겨진다. 탈북자에게 있어서 교회는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될 수 있는, 최소한 해결을 위한 정보가 유통될 수 있는 공간인 것이다. 교회와의 긴밀한 유대가 확실한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탈북자에게 손쉽게도 매력적인 해결사 역할을 한다는 것은 탈북자들이 자신들의 생계를 해결하는 방식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 (2) 생계와 직업

한인 교회와 연계되어 미국에 온 탈북자가 꼭 하는 일은 한인 교회를 돌면서 신앙 간증과 북한 실상을 증언하는 일이다. 처음에 은하계는 간증을 하고 돈을 받는 것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가졌다. 그러나 이들의 증언과 함께 들어오는 사례비 혹은 후원금은 중국에서 탈북자를 계속 데리고 나오는데 필요한 자금이다. 이들은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데리고 온 교회 조직과 연관되어 있다. 탈북자 개인이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해서 간단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탈북자와 이들을 데리고 온 교회 관계자 사이에 이를 둘러싼 반목과 갈등이 종종 빚어지는 것도 이러한 증언 사례비 혹은 후원금의 목적이 무엇이였는가에 대해 상반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양수연과 주기훈 목사 사이에 빚어진 꺼끄러운 마찰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sup>21)</sup> 주기훈 목사에 대한 양수연의 뿌리 깊은 반감은 그가 처음 주기훈 목사

20) 매일 아침 홈리스에게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아침식사해요. 주일날도 안할 수 없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마켓에 나가 도네이션하는 거 빵 받아서 다운타운에 나가요. (이신학)

21) 주기훈 목사가 2006년 그것이 알고 싶드에 나왔어요. 우리는 탈북인권단체의 희생양이었다가 제목이에요.

의 선교 활동을 후원하고 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수연이나 공연팀에게 가야 할 후원금이 전달되지 않고 주기훈 목사에게서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양수연은 독자적인 공연팀을 운영하며 스스로 대표의 위치에 서고자 했고 주기훈 목사는 자신이 후원 스케줄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총괄적 권력이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주기훈 목사를 양수연이 비난하듯 사욕과 파렴치한 내면<sup>22)</sup>의 소유자로 몰아칠 수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그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느 한쪽이 한쪽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이해가 만나 함께 일을 해나가다가 일이 되어가는 질서와 방식에 이견이 나타나면서 발생하게 되는 갈등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연구자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미국생활을 시작한 탈북자들은 결국 교회의 언저리에서 자신의 생계 기반을 안착시키게 된다는 점이다.

“미국에 데리고 와서 ordinary 미국생활을 하고 job을 잡고 superficial 하지 않게 하는 거 필요해요. 어느 사회에서든지 뿌리를 내려야 자생력이 있어요. 이렇게 와서 말하는 거 유형은 다 비슷해요. 탈북자들 말을 잘 하지요. 앵벌이지.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하면 교구의 잘못이야. 미국사회를 알기 전에 더블 메시지를 갖게 해요.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을 몰라요. 뿌리가 튼튼하지 않는 식물이 큰바람을 맞으면 쪼이거나 부러지거나 해요. 미국에 뿌리박고 사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줘야 해요.” (김길순 소장)

“성실하게 막노동하면서 살 생각 안하고 교회만 찾아다니면 계속적인 job 만큼 안정적인 income을 bring up 하고 자기 자존감을 주냐? 자기 identity를 갖고 살 수 있게 해야지 하나님 날개에 매달려서 그래서 superficial 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나치면 사기꾼이 되고 가짜 설화가 나와요. 서로서로 거짓말쟁이라고 해요.” (김길순 소장)

김길순 소장에 의하면 교회를 떠돌며 간증이나 하며 미국에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뿌리가 없는 생존 방식이다. 미국의 강점은 어떤 일이든지 스스로 열심히 노동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만들어가고 이러한 성취 과정을 통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높여가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 땀 흘려 일하지 않고 superficial하게 떠돌다 보면 결국 대중의 입맛에 맞는 스토리를 자꾸 개발하게 되며 사기꾼으로 거짓말쟁이로 변질되게 된다는 것이다.

그의 지적은 양수연의 경우 여러 가지로 맞아떨어지는 면이 있다. 양수연은 간증을 다니며 남한정부나 함께 손잡고 일하던 사람들을 공감하기 어려운 과도한 공격성을 가지고 비난하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생애사를 굉장히 극적으로 재구성한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였다. 양수연은 간증 말미에 가면 간증과 직접 연관된다고 보기 어려운 순대 선전을 하기도 하였다. 또 자신만 간증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재능 있는 탈북자를 데려다가 예술단을 조직하여 미국 전역에 있는 교회를 돌면서 공연을 열기도 하였다. 양수연이 교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시작하였던 순대 식당은 예술단 공연과 대외적인 활동에 밀려 결국 문을 연 지 몇 달 만에 운영상의 문제로 문을 닫고 말았다. 양수연은 교회가 제공해주는 편의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생존의 기반을 개척하지 않는다. 그가 북한에서 살았던 예술 공연

---

주기훈은 이제 손떼야 해요. 탈북자사역 4년 만에 돈을 벌어서 평생 먹고 살 거를 마련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미국에서 후원 받는다 탈북자 한국에 들어오면 또 돈을 받는다 이것은 사역자가 아니에요.

22) 나쁜 놈이야.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 시디 만들어서 사람들은 죽였는데 팔아먹고 다니고 있어. 그걸 생각하면. 사람 죽여서 편하게 잘 살고 있는 놈이야. (양수연 인터뷰에서)

의 세계와 다년 간 간증을 통해 구축해 온 교회 연계망을 가장 중요한 문화적 자원으로 하고 있다.

양수연 같이 각종 한인교회를 돌면서 활발하게 간증 활동을 하고 있지만 최정화 은하수 자매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난민 프로그램과 학교 교육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열심히 적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어와 컴퓨터를 배우고 스스로 한인 마켓에 난 광고를 보고 job을 구하기도 하였다. 새로 다니게 된 미국 공립학교에서도 큰 무리 없이 적응하고 있었다. 최정화 가족에게는 양수연이 누릴 수 없는 난민 정착 프로그램이 있다. 즉 난민 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기초적인 문화적 자원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여 최정화 가족은 이들을 데리고 오고 절대적인 후원을 하고 있는 교회의 선교 목적에 자신들의 장래를 저당 잡히는 그러한 유대 관계로 매몰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은하수 자매와 최정화가 지니고 있는 또다른 문화적 자원은 이들이 살아온 지난 삶이다. 양수연의 현재 identity는 과거의 삶을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북한정권을 찬양하며 살았던 그의 과거는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부정되지 않을 수 없는 삶이다. 그러나 은하수 자매와 최정화의 삶은 오히려 북한정권의 피해자로서 살아온 삶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삶의 순간순간이 모두 값진 증언꺼리가 되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겪을 수 없을 비참함을 이기고 오늘에 이른 최정화, 은하수 자매의 삶은 뉴 프론티어 정신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미국사회에 또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나라의 이민자로 미국에서 자수성가의 신화를 일군 많은 한인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이러한 정착 사회의 긍정적인 시선과 함께 최정화 은하수 자매가 역경을 헤치고 오늘에 이르며 쌓아온 자기 긍정성과 자부심은 이들이 미국에서 직면하게 되는 많은 일들을 적극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는 내적인 문화적 자원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비록 북한과 중국에서 정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산에서 나물을 뜯어 팔며 살아왔다 하여도 이들에게는 미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적 문화적 자원이 있다. 험난한 삶을 극복하며 쌓아온 자기 긍정성, 도전 정신과 성실함, 건강한 자기 관리, 그리고 현재에 감사하는 마음이다.

지극한의 경우도 교회를 통해 들어왔고 또 지금도 교회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지만 교회에 매몰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이다. 그는 조선족 아내와 함께 중국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아왔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 적지 않은 나이에 독신으로 생활하면서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 중국에서 그가 어떤 형태로 살아왔을지 짐작할 수 있기도 하다.<sup>23)</sup>

지극한에게 난민정착 프로그램이 실제적인 도움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 지극한이 난민 정착 프로그램에서 가르치는 영어와 컴퓨터를 소화해 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극한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원은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장대한 국가가 북한에 무너지겠습니까?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암만 떠들어야 소용없어요. 남한은 친구를 잘 만난 거예요. 내가 잘 되자면 인재를 만나야 해요. 그래야 내가 잘되

23) 나는 희망이 있는 사람이 좋아요. 여자도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은 안좋아요. 생활의 계획을 갖고 사는 사람이 좋아요. 멕시코들은 당금당금 살지요. 오늘 생기면 오늘 먹고 오늘 쓰고 미래가 없단 말입니다. 자식을 길러도 오늘을 대비해서 살지 내일을 대비해서 살지 않아요. 오늘 뭐 있으면 술도 밤새도록 먹고 내일 없으면 깨끗하게 살고 우리와 사는 방식이 달라요. (지극한 인터뷰에서)

는 거예요. 중국이 발전 못한 것은 독재 국가로 개방 못하고 발전 못한 거예요.” (지극한)

“북한이 그래서 굶어 죽는 거예요. 왜 봉쇄됩니까? 예술적으로 막아야지. 제 국민을 굶어죽이면서 왜 봉쇄당합니까?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지극한)

그는 미국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영주권을 유지하고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이 사회가 개인의 신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신용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신학 역시 신학대학을 다니며 그를 후원해주는 교회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지만 그의 사고와 현실이 교회에 기생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는 않는다. 교회는 그가 살아야 할 터전이고 오히려 교회를 위해 그가 희생 헌신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는 느낌을 주지 교회가 이신학 자신을 먹여 살려야 하는 숙주와 같은 존재라고 보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이신학은 교회일 뿐 아니라 한편 한인마켓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도 하고 치공 보조로 일하기도 하였다. 이신학의 가장 중요한 job은 학업이라고 할 수 있다. 늦은 나이에 좋지 않은 건강을 가지고도 이신학은 아주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강산과 금잔디는 미국사회 그 자체에서 생계의 기반을 찾으려 한 탈북자 이다.

“교회분을 통해 미국사회에 대해 알아가다가 job을 잡아서 일을 시작하면서 부딪치면서 미국이라는 사회를 알아나가게 되었어요. 전기공사하는 회사에서 일했어요. 소개 받았지요. 즉 한인타운에 있었어요. 식품업계에 삼년 오래 있었어요. 처음 delivery 내부에서 식품 재료 포장하는 일 했어요. 그리고 한식 일식 요식업계에서 좀 일했어요. 일식에서 스시집에서는 스시 만드는 일 했고 한식집에서는 helper로 보조라고 해요 요리사에게 재료 보조해 주고 간단한 거 볶고. 미국사회에서는 처음에 정확히 배워야 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해본 거예요. 나에게 맞는 거 찾느라고. 호텔에서 일하다가 좀 쉬었어요. 지금은 호텔 주차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강산)

“전에 멀리 다닐 때 아주 힘들었어. 지금은 집 앞이라서 좋아 12시에 나가서 3시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쉬고. 6시에 다시 나가서 11시에 들어와. 4일 일하고 3일 쉬어. 보름에 사백불 받아.” (금잔디)

식당에서 금잔디는 아주 능숙하고 재빠르게 일을 했다.<sup>24)</sup> 금잔디가 일하는 모습은 이 분야에서 아주 오랫동안 일을 해 온 사람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게 했다.

“나는 아주 꼼꼼하고 빈틈없고 철저하게 일을 하는 스타일이야. 일을 잘 하는 것도 미움을 받아. 못하는 사람들에게 맞춰가면서 해야 해. 사장은 다 알아. 내가 일 잘하는 거. 내가 일 못하는 사람에게 맞춰가면서 일하는 거 다 알아. 조화를 이뤄서 해야 해. 그래서 무경험자를 싫어하는 거야. 손발을 맞춰서 착착 해야 하는데 무경험자는 손발이 맞지 않아.” (금잔

24) 물통에 얼음물 담기, 냇킨 정리하기, 먹고 남겨진 음식접시 치우기, 주문 받기, 음식 나르기, helping, 필요한 것 추가로 갖다 주기, 상 닦기 등 금잔디는 아주 종종거리며 바빠 움직였다. 음식을 서빙하고 돌아갈 때에는 거의 뛰다니며 했다.

다)

2002년 AB 지역으로 이주해 온 후 금잔디는 식당 웨이츄리스로 오랫동안 일을 했다. 오히려 강산은 일에 피가 있어서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한 반면에 금잔디는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하였다. 이 여파로 병을 얻어 지금도 약을 먹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 AB 지역은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두 부부의 월급만으로는 살아가기가 너무 빠듯했다. 두 부부가 한 달 동안 일을 해도 월급은 천 육백 불 밖에 되지 않는다. 집세 구백 불, 가스 전화비 등 오백 불을 내고 나면 쓸 것이 없었다. 한 달 동안 팁을 모아도 겨우 이삼백 불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변호사비 working form 교체비 같이 특별히 나가는 돈이 있을 경우에는 살 수가 없다.

금잔디 부부는 AB 지역에 들어와 살면서 이렇게 힘든 시기를 처음 겪고 있다.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까지 들지만 이들 부부는 그동안 쌓아온 신용에 힘입어 조금 더 견디어 보려고 하고 있다. 한 이년만 더 힘들면 이들도 괜찮아지리라 생각하고 있다. 신용이 쌓여서 대출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그 자금을 기반으로 작은 식당을 하나 운영해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조사한 탈북자 가운데는 미국사회와 직접적으로 부딪치고 있는 사람은 은하계, 은하수, 박학성, 허경순 등 현재 미국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다. 이들은 영어를 사용하고 미국 음식을 먹으며 미국인 교사에게 수업을 받고 미국인 친구들과 게임을 한다. 이들이 앞으로 미국대학에 들어가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게 되면 이들이 선택하는 직업에 따라 미국 주류사회에 편입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10여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면 탈북자들의 생계 방식과 직업 형태도 보다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들이 주로 살고 있는 한인 타운은 엄밀한 의미에서 미국사회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한인 타운은 탈북자들이 미국사회에 본격적으로 정착하고 발전하는 거푸집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탈북자 1세대들은 이 거푸집 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지라도 말이다.

### (3) 믿음과 교회

연구자가 만나 본 탈북자는 거의 대부분 교회에 나가고 있었다. 이들에게 믿음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교회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북한에서 선교사 이미지가 아주 안좋아요. 피를 빨아서 흡혈귀라고 해요. 나는 2기생이예요. 훈련 받으러 따라 갔어요. 5시에 기상하고 기도 세 시간 하고 열 구절 암송해요. 담배술 안되고 오후에도 세 시간 기도해요. 성경 통독을 250번 했어요. 한국에 와서 백 번 필리핀에서 이십 독 많이 읽었어요. 처음에 삼백 명이 훈련 받았는데 백여 명이 남았어요. 마지막에 칠십 명이 남았어요. 갇힌 데서 공부한 거 너무 감사해요.” (이신학)

“중국에 출장을 나갔을 때예요. 학생이를 데리고 나갔는데 그해 홍수가 나서 호텔이 물에 잠겼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호텔에 갇혀 있었는데 학생이가 설사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학생이를 들쳐 엮고 어디론가 데리고 갔어요. 알고 보니 그곳은 교회였어요. 학생이를 엮고 가신 분이 바로 그 교회 선교사님이었어요. 북한에서 중국에 나올 때 절대도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맹세하고 나와요. 남한 사람 만나지 않을 것. 교회

에 가지 않을 것. 선교사 만나지 않을 것. 나는 두 가지나 어겼잖아요. 그 교회에서는 학생이 치료해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올 때 나에게 돈을 좀 쥐어줬어요. 애 뭘 좀 사 먹이라고.” (양수연)

이신학이 연변 지역에 파송 나와 있던 1기생들을 만나며 처음으로 기독교 세계에 들어오게 한다. 이신학이 간 곳은 탈북자들을 모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 다시 동북 3성으로 파송시키는 곳이었다. 사실 이신학은 자신이 받을 훈련이 이런 것이었다고 알고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가 들어간 조선족 마을 어디에도 돌아서 침도 뺄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 북한을 떠나 온 가난하고 초라한 그가 안전하게 머물며 배고픔을 달랠 곳이 없었을 것이다. 이들 말의 어떤 것이 이신학의 마음을 당겼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신학에게 다른 선택을 할 여력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신학이 스파르타식 교육 과정을 오히려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은 아니러니라 할 수 있다. 어떤 과정을 거쳐 그가 이러한 진술을 하게 되었는지 좀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정화 가족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 이들은 처음에 어떻게 김준모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아마도 중국에서 가족이 뿔뿔이 헤어져 살고 있을 때 떠돌아다니던 아이들을 발견한 김준모 선교사가 운영하던 은신처에서 이들을 거두면서 만남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아이들을 만나러 오던 최정화가 이러한 과정에 자신도 교회에 받을 들여놓게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아이들은 보다 쉽게 선교사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겠지만 최정화는 선교사의 가르침을 바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너무도 막막하고 위험한 현실 때문에 교회에 받을 들여놓기는 했어도 탈북자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듯이 하느님을 살아계신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하느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 일순간 내뱉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생활의 모든 면과 연관이 되기 때문이다. 즉 믿음의 삶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총체적 문화를 이루고 있으며 바로 나와 이웃의 인간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포기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과 영적 세계에 대한 관념을 부정하는 유물적 세계관 속에서 자란 탈북자들이다. 비록 주체사상과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로 변형되기는 하였지만 근간에 사회주의적 철학과 문화가 자리하고 있는 북한에서 자란 사람들이다. 이들이 한국 기독교 문화에 깊은 불신과 거부감이 드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이들은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 불러일으켰던 갖가지 불신들을 허물며 그리스도교의 교리와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비판적 사유를 멈춘 채 있는 그대로 교회가 가르치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는가?

“성경을 읽어도 모른다고 하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웃으면서 넘어 감시다 하시며 그냥 넘어가라고 했어요. 사실 불쾌했어요. 나를 무시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가라사대 이런 말 처음 듣는 말이니까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학생이를 찾으러 북한으로 사람을 들여보냈는데 아이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보냈는데도 역시 찾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믿고 기도만 하라고 그러면 학생이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죽자 사자 매달렸지요. 울면서 영영 울면서 기도했어요. 학생이만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느님 믿을 테니까.” (양수연)

“중국 사역장에 갔을 때 규정 생활 있어요. 그런 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제일 자존

심 상하는 거 성경 읽는 거예요. 북한도 나름대로 민족 문화 발전시켰어요. 조국이며 너는 진정 무엇이기에... 이런 시 읽으면서 자랐는데 가라사대 이게 무슨 말 이에요? 옛날에 갓 쓰고 담배 피던 때 쓰던 글이에요.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야. 남의 나라 온 것도 분통한데 남의 나라 역사책까지 읽어야 하니! 가라사대! 고평내 시절에 쓰던 말로 고랑 냄새나는 책을 읽으라니 눈물이 주루룩 흐르는 거야. 내 처지가. 사라사대 그 말에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런데 1기생 가운데 얼굴에 파리가 붙은 것도 모르고 성경을 읽는 거야. 전문대학도 나오고 똑똑한 사람인데 이런 책 읽는다는 게 신기하고.” (이신학)

“도문에 잡혀가서 하나님 안믿겠다고 하니까 귀신이 들렸어요. 그냥 생각 없이 얘기를 해도 다 맞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은하수는 삼푸로 머리를 감고 나는 가루비누도 없어서 못감고 은하수는 맛있는 거 먹고 나는 못먹고 두 달을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 은하수는 좋은 게 생기고 하나님 안믿는 나는 나쁜 것마저도 없어요. 그런 걸 보면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불도 처음 붙여야 타오르기 시작하듯이 입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을 만큼 병에 걸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은하계)

처음 신분도 기초 생활도 보장이 안되는 상황에서 선교사들이 마련해주는 은신처와 생활 물품들은 몸 하나 제대로 둘 곳이 없던 탈북자들에게 필수불가결한 것들이었다.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여 현재의 모든 절박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조금의 여지를 가질 수 있다면 못할 것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시작된 하느님과의 만남이 존재의 정수로까지 내려가게 되는 과정은 참으로 흥미로운 과정이 아닐 수 없다.

“거기에는 성경책 순교자책 밖에 없어. 순교자 전기. 평양신학교 출신 분들이예요. 이 책 읽으면서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 (이신학)

“ 세 번째 탈북을 할 때 중국 동네를 잘못 들어갔어요. 북한사람들이 소를 여러 마리 도적질 해가고 사람을 때려서 병신 만들어 놓아 북한 사람 잡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이를 갈고 있는 마을에 잘못 들어간 거야. 변방대 경찰 삼사십 명이 나를 추격하는데 이게 마지막 길인데 잡혀 나가면 끝장인거야. 기도했어요. 하나님에게 힘을 주세요. 삼 일째 굶었지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힘을 주십시오. 영원한 나를 전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어요.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등 뒤에서 찬양을 들려주시면서 나를 미는데 산을 올려 뛰는데 삼사십 명이 나를 따라 뛰는데 너무 빠르니까 덩치 큰 한족들이 나를 앞에서 막아. 그냥 친 것도 아니고 뿌리쳤는데. 지칠 때까지 산 다섯 개를 넘었어. 그 다음에 앉아서 잘 가라고 손 흔들어주고.” (이신학)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아들 찾았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수연)

“그 기도 하고 삼 일 만에 온 몸이 불덩이 같이 되면서 열이 나는데 은하수가 스물 네시간을 잠을 자지 않고 물수건을 갈았어요. 이렇게 삼일 동안 열이 났다가 이번에는 차갑다

못해 온몸이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오한이 나는데 담요 열개씩 덮고도 추웠어요. 그리고 나서 발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며칠동안 잠도 자지 못하고 간호하다 은하수가 쓰러졌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시험한 거 잘못했습니다. 참을 수 있는 힘주세요. 기도했는데 이때 김 선교사님에게서 연락이 왔나 봐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이미 뼈에 고름이 차서 발을 잘라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도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내 발로 잘라야 한다는 그 발로 걸어서 나왔어요.”(은하계)

사실 이들이 진술하고 있는 사건들은 상식적으로는 잘 설명이 되지 않는 사건들이다. 이렇게 저렇게 짜 맞춘다고 해도 그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하고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것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연구자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건들이 이들에게 삶을 어떤 의미로 바꾸게 되는가이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들을 도와줄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재원도 없고 자신의 안전을 보증해줄 어떤 권력도 없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대로 앉아서 고통에 파묻혀 죽어야 했는가? 생존의 벼락에서 있던 이들은 지금 이 순간 바라고 있는 오직 한 가지에 모든 것을 걸었다.

전환의 순간 전에 이들이 믿었던 하느님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도구적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현실에 필요에 의해 하느님을 통하면 하느님이라는 이름으로 따라오는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도구적으로 이용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즉 교회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물리적으로 제공해주는 이런저런 물질 내용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차원에서 하느님을 믿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멈추고 모든 것으로부터 소외된 그 시점에서 사실 이들에게 하느님은 죽어 있는 존재였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들의 삶을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바로 이 순간에 이들은 하느님을 불렀고 변화를 간청하여 불가능이 가능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지옥이 낙원으로 바뀌는 체험을 하게 된다.

왜 이들이 그 순간 하느님을 불렀을까? 이들은 이미 그 어떤 존재도 이들을 돕지 않는다는 것을, 이들이 존재하는 공간에는 이들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해 줄 어떤 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굴러다니는 돌보다도 밟고 다니는 풀보다도 하잘것없게 이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이들이 살고 있었다. 이들이 자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공간에 버려져 있었다.

탈북자들의 내면에 자리하게 된 믿음은 이들이 갖가지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살아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대단히 고무적인 내적 문화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비록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길에 들어섰지만 이렇게 내면화된 믿음을 가지게 된 탈북자는 사실 이들에게 믿음을 전도한 이들을 뛰어넘는 힘을 발휘한다. 즉, 하느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음과 현실과 부딪칠 때 믿음의 방식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즉, 믿음을 위해서라면 하느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탈북자들은 체험을 통해 현실을 변화시키는 하느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한편, 하느님 개념을 자신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개념들과 연관시키며 받아들인다고 생각된다.

“내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야. 얼마나 지혜롭게 지으셨는지. 내 아버지가 우주의 주인이라는데 얼마나 대단하신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가 내 아버지에게 있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는 분. 그분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 가



숨이 뛰어요. 하나 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셨어. 지렁이 같은 짐승 같은 존재인데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이신학)

이신학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아버지가 ‘책임지고’ 있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아버지에게 대해 묘사한다. 또 자신을 ‘지렁이’ 같은 존재라고 묘사한다. 이신학의 아버지 개념, 그가 기대하고 있는 하느님의 역할, 예수님의 이미지는 대단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신과 인간의 관계 규정이 대단히 수직적이고 대립적이다. 그의 이러한 신 개념은 그가 북한사회에서 형성했던 가치 구도의 틀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이신학은 기독교가 신과 인간의 수직 구도 뿐 아니라 만인의 수평 구도도 함께 담고 있는 측면에 대해서 한번도 강조하여 이야기 하지 않았다. 이런 측면은 곧 이신학 개인과 교회와의 관계에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들을 인도한 선교사와 탈북자의 관계 역시 수직적 구도를 강하게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된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강한 체험을 통해 절대적인 믿음을 지니게 된 탈북자들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어떤 갈등을 겪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사실 아줌마 가고 김 선교사님께 안좋은 소리를 들었어. 뭐 하기 싫다고 안하냐고.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싸웠어. 그때부터 내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 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하나?” (최정화)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장쩌민이 시키는 대로 복종해서 살아야 하고 여기서는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복종하고 살아야 하니 다른 게 뭐예요? 똑같이 여기 왔어도 아무런 자유가 없어요.” (은하계)

“대화를 나누고 지나간 다음에 그 사람과 대화해 보니까 (달라요). 억울하잖아요. 목사님과 얼마나 논쟁했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어떻게 평가했든지 내가 당해보지 않고 겪어 보지 않고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지극한)

“선교사님들이 북한선교에 관심을 가진 북한형제를 중심으로 탈북자교회를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참가해 달라고 하셔서 참가했어요. 그분들이 학비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시길래 감사하다고 했어요. 설립예배에서 답사를 제가 했지요. 떠나게 되었는데 내가 맡아줬으면 하셨어요. 학비도 지원하기로 했고 북한 사역 하려고 하는데 나는 북한 사람인데 그러면 기도 좀 해보고 답을 주겠다고 그랬지요. 돌에 맞아 죽는 거, 불에 타 죽는 거 각오 했으니까 하리라고 했어요.” (이신학)

최정화 가족 같이 선교사가 직접 탈북자를 데리고 오는 경우 이들이 참가하는 간증 집회나 인터뷰 요청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한국 선교회에서 이들을 데리고 오는 맥락에는 북한 선교라는 포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들이 선교의 도구로서 활동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비난을 받기 십상이다. 연구자가 관찰한 몇 달의 기간 동안 최정화 가족은 EF 지역을 돌며 수십 군데의 교회에서 간증을 하였고 DHMK가 주최하는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위해 워싱턴까지 갔으며 국회에서 증언을 하고 방송국에 출연을 하였다. 또, 이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쓰겠다는 작가를 만나고 각종 신문의 기자와 탈북자를 주제로

논문을 쓰겠다는 학생들을 만났다. 각종 북한 관련 행사 관계자들은 의례 이들을 초청하여 학술회의를 열고 영화를 상영하며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이들은 이미 한인사회에서 또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위한다는 미국단체 사이에서 공인으로 자리매김 되어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일정이 김준모 선교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조율되어 통보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그 다음날 일정도 모른 채 아침을 맞으며 김준모 선교사의 일정을 모른 채 정했던 약속들은 뒤로 미뤄지거나 없던 일로 하기 일쑤였다. 김준모 선교사가 정한 일정을 거부하거나 반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심한 고통으로 돌아오기 십상이었다.

이러한 구도가 통용될 수 있는 배경에는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최정화 가족과 김준모 선교사의 오랜 관계가 있다. 은하수 자매는 아주 어릴 때 김준모 선교사를 만나 친할아버지처럼 가깝게 지내왔다. 지금도 자매는 김준모 선교사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연로함으로 겪게 되는 사역의 여러 어려운 일들을 돕고 있다. 이들은 김준모 선교사가 이들을 필요로 할 때면 언제든지 시간을 내서 달려가 도왔다. 전적인 헌신으로 맺어진 이들 사이의 관계가 최정화 가족을 미국까지 오게 하고 현실의 삶으로 이르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발전적인 기능을 하게 될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지극한은 자신이 기거하고 있는 교회의 고은별 목사와 논쟁을 벌이기도 한다. 이신학이 기거하기 전에 있었던 탈북자 S는 고은별 목사에게 교회에 나오는 다른 탈북자에 관한 비방을 하여 다른 탈북자들과 고은별 목사 사이를 이간시키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한다. 이신학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고은별 목사와 논쟁을 벌였다고 생각된다. 고은별 목사의 태도는 이신학이 연구자에게 한 평소 언행으로 볼 때 부딪칠 수 뿐이 없는 태도라고 보인다. 은하수 자매와 이신학의 차이는 은하수 자매가 대놓고 김준모 선교사와 논쟁을 벌이지 못하는 반면 자신의 견해를 당당하게 말한다는 것이다. 탈북자와 교회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맺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부분이다.

이신학이 탈북자 교회를 맡아달라는 선교사들의 요청에 ‘죽을 각오’를 하고 받아들인다. 이 이야기는 거꾸로 그만큼 심적 부담이 큰일을 승낙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일을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자로서는 지나치다고 생각이 들며 제안을 할 때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거절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신학 역시 선교사들처럼 이 제안이 지닌 불편함을 의식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 기도라는 방식으로 결정을 유보했다. 불균등한 관계의 권력 자체를 의문시하는 것은 이미 그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었다.

“중국에 오면 교회가 많지요. 의지할 데 없으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일자리부터 찾아갖고 교회 찾아가는 거예요. 설교도 듣고 방조도 받고 밥을 디겨주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식이지요. 교회 가면 첫째고 둘째고 하느님 믿는 사람은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돈으로 돕는 게 아니예요. 지내보고 이 사람이 이렇구나 알고 좋으면 계속 만나고 싫으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돈을 요구하고 한번 방조 받고 두 번 방조 받고 돈 몇 푼 얻어가고 떨어지면 또 도와달라고 오고. 하나님 정신을 배워야 하니까 자기 능력을 발휘해야 해요.” (지극한)

북한에서 형성되어 있던 사회적 연계망을 끊고 탈출한 탈북자들에게 교회는 절대적인 관계의 망을 제공한다. 이들은 생활을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 이미 이 지역에 와서 기반을 잡

고 있는 교회로부터 생활 용품에서 일자리, 한 끼 식사까지 교회는 전방위적으로 이들에게 필요했다. 심지어 탈북자들이 교회에 오면 돈을 주기도 하였다. 또한 교회는 이웃을 사귀고 관심을 공유하며 공동체라는 의식을 충족시켜줄 사회적 공간으로서 아주 좋은 도구였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러한 부조가 관계의 권력을 불균등하게 흐르게 한다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교회가 탈북자를 데리고 나오고 훈육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시혜를 하는 자와 시혜를 입는 자로 관계의 성격이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더구나 탈북자들이 북한과 중국을 떠돌며 외톨박이로 버려져 생존해야 했던 체험이 이러한 관계의 불균등한 질서를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다.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살아 있는 탈북자일수록 관계의 불균등한 권력에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많다.<sup>25)</sup> 여기서 교회가 탈북자들에게 전하는 하느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즉, 그리스도교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사회 정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이 탈북자와 교회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탈북자와 교회의 관계가 정의에 기반 하여 전개될 때 서로에게 발전적인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이런 점에 주목하여 탈북자 지원단체들을 살펴보고 탈북자들 사이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이들 단체 안에서 관계의 권력이 균등하게 흐르는 관계, 민주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4) 탈북자 지원단체와 자생적 탈북자단체

탈북자 지원단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교회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탈북자를 지원하고 있는 교회는 직간접적으로 DHMK와 연계되어 있다. DHMK는 미주 지역 한인교회들의 연합체로 2004년 결성되었다.<sup>26)</sup> DHMK 홈페이지에 보면 DHMK가 북한동족과 탈북자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순수한 운동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DHMK 선언문에 나와 있는 북한정권에 대한 요구 사항을 보면 사정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북한정권에 공개처형과 정치범 수용소, 강제 수용소 폐지를 요구하고 핵무기 개발 포기를 요구한다. DHMK가 미주 전역을 돌며 일으킨 첫 번째 활동은 통곡 기도 운동으로 그 기도 제목을 보면 중국 정부의 북송 반대, 강제 수용소의 개방, 북한 체제의 변화 등 각국의 정치적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사안들이 들어가 있다.<sup>27)</sup> DHMK는 기도 운동의

25) 어머니는 조선에서 춘향이라고 불렸어요. 엄하게 자라셨어요. 조선 여자들은 이렇게 해놓고 살지 않습니다. 자기 편한대로 하고 살지 않습니다.(은하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단지 배가 고파서 나왔을 뿐이지. (최정화) 학생 때 모내기 전투에 한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빠지면 반동자라고 부모가 가르쳤어요.(이신학)

26) DHMK 선언문

요구

첫째, 북한 정권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공개 처형을 중지하며 정치범 수용소와 강제 수용소를 즉각 폐지하라.  
둘째, 핵무기와 생화학무기의 개발을 포기하고 그 여력으로 굶주림 속에서 고통 받는 국민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

27) 기도제목

- 1) 북한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의 능력 위에 신앙자유가 회복되게 하소서.
- 2) 중국 정부가 더 이상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북송하지 못하게 하소서
- 3) 북한의 강제수용소에 갇힌 20 만명 이상의 북한동족들이 풀려나게 하소서
- 4) 분단 된지 60년이 지난 이민족을 기억하사 북한의 체제가 변화되게 하소서
- 5) 북한의 지하교회들과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탄압과 처형이 중단되게 하소서

성과 가운데 하나로 통곡 기도 집회가 이루어지던 날 북한인권법이 의회를 통과했다는 것을 들고 있다.

최정화 가족을 데리고 온 김준모 선교사, 지극한과 이신학을 데리고 온 주기훈 목사, DHMK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영철 목사는 모두 DHMK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들이 집회에서 한 연설과 기도를 보면 DHMK의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에게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이다. 하느님을 믿겠다고 하면 죽이는 나라, 하느님을 대적하는 나라, 사탄의 나라이다. 즉, 선하신 하느님께 대적하는 악의 축이다. 그러므로 하느님 믿는 백성을 탄압하고 하느님을 부정하는 북한정권은 무너져야 한다. 이러한 북한정권으로 하느님 믿는 백성을 잡아서 돌려보내는 중국도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이런 나라에서 벌어지는 올림픽도 보이콧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8년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보면 한국과 중국에서 온 탈북자의 의회 증언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인신매매되고 있는 탈북여성 참상, 정치범 수용소 실태 등을 생생하게 증언하며 북한사회와 탈북자의 참혹한 현실을 폭로했다. 최정화 가족도 이 행사에 참여하여 은하계가 중국 감옥에서 수감 여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에 놓여 있는지를 증언했다.<sup>28)</sup> 북한을 위한 기도회에서는 기아로 인간다운 삶이 몽그러진 북한 주민의 참상을 담은 화상 자료를 내보냈다. DHMK는 디펜스 포럼, 프리덤 하우스 등 미국 인권 단체와 함께 북한을 압박하고 김정일 정권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DHMK의 활동을 보면서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 첫째, 이들이 증언자들이 북한정권의 실상을 폭로하는 증언을 하므로 받게 되는 부정적 반향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성에 관하여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있으며 여성의 가치를 순결과 연결하여 평가하는 가치 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워싱턴 의회 앞 잔디밭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진 행사에 한 탈북여성이 소개되었다. 이 여성을 데리고 온 단체장과 함께 소개되었다. 이 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 소개가 되기 때문에 비록 이 여성이 이 집회에서 증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구자조차 바로 이 여성이 그 증언을 할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신매매,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탈북여성들의 삶이 언론과 인터넷에 너무나 공개적으로 돌아다니는 문제는 이미 이기훈 목사가 탈북여성을 미국에 난민으로 데리고 들어왔을 때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그런데 아직도 그리고 더 공개적으로 증언자가 공개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다음과 같은 의문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증언자들은 증언을 자발적으로 원하였는가? 관계자들은 증언자가 이렇게까지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줬는가? 그리고 증언자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치밀한 대책을 마련했는가? 이러한 공개가 이들 여성 또는 탈북자 일반이 미국사회에 평범한 한 이민자로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마련되었는가? 북한사회를 탈출하여 소위 자유민주주의국가에 정착한 탈북자에게 가장 중요한 체험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어느 정도까지 존중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다. 두 아이가 격투를 하여도 가해자의 처벌 내용을 피해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미국사회에서 이러한 탈북자 증언 행사는 증언자의 귀중한 삶을 보장하고 존중하는 것이 모든 행사의 필수 조건이 되어 준비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6) 중국내 탈북자들에게 세계와 유엔이 정한 난민지위가 부여되게 하소서

28) 감옥에서는 위생대( 생리대)를 따로 주지 않기 때문에 여자들이 덮고 자는 담요 끝을 잘라서 위생대로 사용한다. 하지만 그렇게 한 것이 간수에게 발각되면 사용한 위생대를 입에 물고 있어야 한다. (은하계)

둘째, DHMK는 북한의 참혹한 실상을 폭로하는 방법에 커다란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이 방법만이 북한정권의 변화, 체제 변화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는가? 비록 탈북자가 기아와 독재를 피해 북한을 탈출하였다 하지만 북한과 탈북자의 관계가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그곳은 이들이 태어났던 나라이고 자랐던 나라이며 아직도 부모 형제 자녀가 살고 있는 곳이다. 또 언젠가 다시 돌아갈 나라이기도 하다. 북한을 너무 비참하고 반인간적인 사회로 몰아가는 것은 이들에게 내면의 가치가 충돌하는 혼란, 자아 존중감을 끌어내리고 자기정체성을 정립하는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들은 새로운 사회에서 자신이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노출시키지 않으려 할 수 있다. 또 더 강한 공격성으로 북한사회를 부정할 수도 있다. DHMK가 북한의 참상을 강조하며 체제 붕괴의 정당성을 주장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오히려 탈북자들이 새로운 사회에 정착하는데 중대한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미국 중심의 세계 전략과 배치되는 입장을 지닌 나라들과 보다 유연하게 관계를 맺어갈 수는 없는 것인가? DHMK는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간단하게 처리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세계 전략을 짜고 있고 탈북자 문제를 통해 중국의 이미지를 공격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고자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HMK가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의 다양한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미국의 이해와 입장에 서서 활동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비록 미국이 자본주의 국가이고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우리의 이해와 미국의 이해가 충돌할 경우 미국이 우리의 이해와 입장에 서서 정치하지 않으며 우리의 이해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세계 질서 전략에 서서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은 DHMK가 선언문에서 밝혔던 민족 통일에 결코 득이 되는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고 미국과 전선을 형성할 의도가 전혀 없으며 그러한 전략이 결코 중국에 이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을 남한과 적대적 관계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정책을 편다는 것은 동아시아를 새로운 긴장과 갈등의 장으로 몰고 갈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냉전과 대립은 한국에도 중국에도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

DHMK의 혼란스러운 입장은 불법적인 것은 하느님의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면서 합법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 경우 탈북자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볼 수 있다. 이들을 바라보는 DHMK의 입장은 미국이 이들을 북한인권법의 보호 속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를 보여준다. 이들 논리에 모순이 느껴지는 것은 보편적인 하느님의 정의와 사랑이 실제적으로는 DHMK가 규정한 범위의 사람들만을 위한 정의이고 사랑으로 귀착된다는 것이다. DHMK가 보여주는 편향성은 사실상 또 다른 얼굴의 지배가 될 수 있다. 자유와 민주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이름으로 탈북자를 위해 일하지만 그들 자신이 또 하나의 권력 주체가 되어 이들을 지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탈북자를 이민자 프로그램에 넣어 돌보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김길순 소장이 있다. 김길순 소장은 NSN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EF 지역에서 흑인 가정, 러시아 이민자 가정, 멕시코 가정 등을 오랫동안 돌봐왔다. 2000년 멕시코 국경을 넘어 들어온 탈북자가 이 단체에 찾아온 첫 번째 케이스이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후 국경에서 탈북자임을 밝히고 감옥으로 들어간 탈북자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오면 지원했다. 영치금도 넣어주고 변호사도 지원해줬다. 사실 김길순 소장은 탈북자들에게 미국보다 한국이 더 적합한 정착지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미국을 잘 모르고 언어와 문화도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에 들어오는 탈북자들이

난민으로 받아들여지면 훨씬 적응하기에 낫다고 생각한다. 탈북 청소년들이 미국으로 들어 오기도 하는데 이들은 북한 문화, 북한 음식을 모르는 가정으로 위탁된다. 김길순 소장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동안 진행되어 온 이민자 프로그램에 탈북자를 결합시키는 것이다.

사실 DHMK에서 미국 이주 탈북자를 담당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DHMK와 탈북자 모두가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 전문 단체에서 담당하게 되면 이러한 시행착오가 훨씬 덜어질 수 있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전적으로 미국 난민기구에서 담당하는 것과 비교하여 살펴보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그에 앞서 탈북여성 한명이 이곳에서 계속적으로 머물지 못했던 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비록 전문 기관이라고는 하지만 DHMK가 겪었던 시행착오가 이곳에서도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탈북자 지원단체로 새롭게 결성된 것은 탈북망명자지원회(SCNKAS)로 AB 지역 탈북자들의 망명신청 소송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SCNKAS는 2007년 8월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첫 번째 집회를 그해 9월에 가졌고 11월에 두 번째 집회를 가졌다. 당시 탈북자들은 미국인 변호사에게 망명소송을 맡겼는데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이 문제는 순수한 법적 문제이기 보다 정치적 맥락을 지니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활동이 필요했던 것이다. 다시 12월에 집회를 하였다. SCNKAS는 탈북자를 북한에서 나온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제3국에서 체류하지 않고 한국으로 갔기 때문에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고 그래서 북한인권법의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보고 있다.

첫째, 탈북자들은 이남에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다. 한국정부는 이들이 미국으로 가는 것을 막았다는 것이다. 또 한국 시민권을 자발적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시민권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탈북자들이 미국 대사관에 가도 유엔에 가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 캐나다나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을 한국정부가 막고 나섰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 이민법에서는 첫 번째 나라에서 자리를 잡으면 다른 기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인 케이스가 하나 있다. 이스라엘에 잠깐 들렀다가 왔는데 난민으로 받아들여졌다. 즉 그가 처한 totality 사정을 봐서 판단을 내린다고 되어 있다. 문화도 다르고 시민권을 줄 이유를 찾은 것이다. 셋째, 남한에서 탈북자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정권이 탈북자들을 적대시하기 때문에 북한과 붙어 있는 남한에서는 마음 편하게 살 수 없다.

SCNKAS에서는 2008년 6월 세미나를 열어 남한 국적의 탈북자들에 대한 미국정부의 주장이 갖고 있는 부당성을 밝히고 AB 지역 탈북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려 인도주의적으로 도울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하여 의견을 모았다. 이 지역 의사들을 조직하여 문화적 자원봉사자 명단을 만들어 emergency정보를 주고 기금을 마련하여 급한 사람들을 돕자는 의견들이 나왔다. 의식주가 어려운 탈북자들을 위해 컴퓨터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만 건물과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 미주 지역에는 탈북자 사역과 북한 사역하는 한인교회들이 이 지역 탈북자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물적 기반이 잘 마련되지 않고 있다. 왜 이 지역 탈북자들에게 관심과 지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탈북자 일반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sup>29)</sup> 사실 이들과 일을 같이 하고 있는 박혜빈 변호사도 몇 가지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sup>30)</sup> 이러한 측면은 탈북자의 개인사 속에서

29) 믿을 수 없다, 도와주는 사람도 욕먹으니까 돕지 마라, 말한 것을 잘 지키지 않는다

30) 뭐 해야 한다고 하면 시간에 온다고 하고 안온다, 떠나면 알려줘야 하는데 안알려주고 떠난다, 알려주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것을 모른다, 의심이 많고 자기들을 이용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이러한 경향들이 형성되었고 고착화되었는지 함께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탈북자 사이에 단결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적대와 반목이 살벌하게 전개된다. 지속적으로 서로 단합하는 모습은 찾기 힘들다.<sup>31)</sup> 그러나 이러한 탈북자들이 보여주는 부정적인 외연 외에도 이들을 바라보는 재미한인들 마음속에는 한국에서 정착하도록 도와주었는데 왜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미국까지 왔는가 하는 의문이 자리하고 있다.

“사실 나도 탈북자를 좋게 안봤어요. 한국서 나라에서 도와주고 고마운 줄 알고 그래야지 여기까지 와서 한국이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다니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북한놈이라고 하면 짝혀요. 북한에서 협박 전화가 오기도 하고 말조심하라고. 당신 가족 어디에 있는지 안다고. 북한놈이라고 차별 당하고 그런 일 겪으면 그거 싫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마음의 심정을 겪어봐야 알아요. 이들은 tortured 되어 있습니다.” (박혜빈 변호사)

“탈북자 힘든 것 당한 것 들으면 동정이 안갈 수 없어요. 겪은 것 고통 들으면 불쌍한 마음과 아픔 어느 정도 듣고 그러면 가슴이 움직이지요 인간으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박혜빈 변호사)

SCNKAS가 지금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은 이 지역 탈북자들의 법적인 문제이다.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해나가야 할 일은 이들이 긴 소송 기간 동안 가장 기본적인 생존 조건들, 잠이라도 자고 밥이라도 먹으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또한 이들이 미국이라는 사회를 살아갈 기본적인 규칙과 원리를 익혀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을 새로운 사회와 조화시키는 작업을 탈북자들이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SCNKAS가 앞으로 담당해야 할 중요한 한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AB 지역에서 만들어진 탈북자들의 자생적 단체로는 탈북자연대와 탈북자전교회, 북한에 술단을 들 수 있다. 탈북자연대는 2003년 뉴욕교회단체의 초청으로 들어온 KY가 먼저 AB 지역에 들어와 생활하고 있던 강산과 함께 그해 4월에 만들었다. 이들은 바로 비영리단체로 등록하고 망명신청을 했다. KY가 대표를 맡고 강산이 사무국장 그리고 나중에 KY가 한국에서 데려온 S가 총무를 맡았다. 탈북자연대가 만들어진 취지는 미국에 들어온 탈북자를 협회 회원으로 만들어 미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었다. 단체를 등록하면서 바로 망명신청을 하였다. 명함 1씩어서 여러 단체행사에 나가서 돌리자 탈북자 단체가 처음으로 생겼기 때문에 한인사회에서 관심이 많았다. 여기저기서 협회에 후원금을 주었다. 그러나 KY는 이러한 후원금을 S 하고만 관리를 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강산은 이 단체와 함께 활동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S가 와서 총무를 하면서 재정문제는 KY와 S 둘이서 했어요. 그런데 후원금 때문에 서로 흑심을 품다 보니까 갈라졌어요. 총무로 돈을 맡겼는데 대표도 모르게 자기 명의로 거액을 개인적으로 활용했나 봐요. 그래서 싸움이 나고.” (강산)

양수연은 AB 지역으로 들어와 KY와 헤어져 식품회사에 다니는 강산과 함께 탈북자연대

31) 단합이 안되는 이유를 들자면, (이들이 살아 온) 북한사회에서 서로 의심해요. 말 잘못하면 잡혀 가니까. 그리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겸손하지가 않아요. 모르면 물어보지 않고 결단을 팍팍 내려버려요. 또 서로 뜯어먹는 게 많아요. 누가 먼저 영주권 받았다 그러면 싫어서 난리예요. 어쩌면 북한이 더 계급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박혜빈 변호사 인터뷰 중에서)

를 조직하였다. 대표는 양수연이 맡고 총무는 조진형이 사무국장은 강산이 맡았다. 금잔디는 회계를 맡았다. 두 번째 AB 지역 조사에서 연구자는 이들과 함께 순대를 만들었다. 10월의 서늘한 날씨 속에서 부추를 씻는 법을 배우고 양파를 까며 눈물을 닦던 기억은 연구자가 일년 넘게 미국에 거주하며 이들과 함께 지냈던 가장 행복한 시기 가운데 하나였다. 청국장찌개를 바글바글 끓여 아침을 먹던 일, 한인 타운 축제에 나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음악을 틀어놓고 “순대 사세요!”를 외치던 일, 고향이 북한이라며 순대를 사시던 할머니 할아버지, 금잔디가 함께 축제에 나가 장사를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하루일이 끝나고 돌아오는 우리에게 정갈스러운 술상을 차려주던 일, 돌아보면 한 장면 한 장면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기억들이다. 하루 매상 3000불을 올리던 날 우리는 모두 흥분하여 정신이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팀웍은 불과 몇 달 후에 산산이 부서졌다. 양수연이 한국에 있는 북한출신 예능인을 초청하여 예술단을 조직하였다. 이들은 자동차를 새로 뽑고 공연복을 주문하며 준비를 착실하게 해갔다. 이들의 공연을 여러 한인교회에서 환영하였고 순회공연은 성공리에 마쳐졌다. 이들은 순회공연 중간에 북한예술단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기도 하였다. 문제는 이미 순회공연 과정에 발생했다. 그러나 이때 생긴 갈등의 골이 표면화된 것은 양수연이 순회공연에서 돌아와 독자적으로 순대 식당을 연 후였다. 양수연은 금잔디와 함께 식당을 시작했는데 식당 운영 방식과 작업 방식에서 서로 이견이 발생하였고 결국 서로 갈라서게 되었다. 북한예술단 임원에서 금잔디 부부가 빠져 나오고 탈북자 전교회 일도 그만두게 되었다. 양수연은 새로운 탈북 예능인으로 충원하여 북한예술단을 계속 운영했다.

양수연 부부와 강산 부부가 탈북자전교회를 함께 하고 있을 때 탈북자연대의 KY 대표와 양수연 사이에 법적 공방이 있었다. KY 대표는 양수연의 아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이 사실이 인정되어서 접근 금지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양수연 역시 KY의 사생활을 들춰가며 인신공격을 하였다. 워싱턴 디씨에서 양수연을 만나 연구자가 강산 부부가 왜 같이 오지 않았냐고 물었을 때 양수연은 강산 부부가 돈을 더 좋아하여 이 일에서 떠났다고 말했다. 양수연이 이해하기에 강산 부부가 자신과 갈라서게 된 것은 돈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 돈이 문제가 되어 갈등이 촉발되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모든 문제를 설명해주는 만능키가 될 수는 없다. 이러한 이해방식은 사실상 어떤 문제든지 기본적으로 쌍방 간에 작용을 하여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문제의 발생은 총체적이고 문화적이다. 격렬한 충돌이 일어나기까지 쌍방 간에 오고가는 무수한 교통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보지 않는 한 자신의 행동이 일으켰을 파장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타인의 행동에 문제의 원인을 전적으로 귀착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해보지 않는 한 양수연은 같은 유형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겪으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다.

양수연이 조직한 북한예술단 활동은 엄밀하게 말해서 미국 거주 탈북자들의 자생적 단체라고 보기 어렵다. 이것은 양수연과 한국 거주 탈북자가 함께 만든 단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술단원은 고정되어 있기보다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라 교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원과 단체가 안정적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북한예술단은 미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일반 보다 양수연 개인에게 실제적 소득을 안겨주고 있다고 보인다. 예술단 공연을 통해 목돈을 다룰 수 있게 해주고 양수연을 탈북자를 대표하는 간판 인물로 부각시켜준다. 또한 한국의 북한 예능인에게 양수연을 통하면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그러나 앞으로 북한예술단이 미국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양수연 개인 뿐 아니라 예술단원 모두가 공연의 과실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이들 공연의 질이 북한 예술의 소개 차원을 넘어 예술적 품질을 담보해야 한다. 북한예술단이 프리미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북한



을 보여주는 공연이 그동안 흔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한 레퍼토리화 편향된 주장, 북한문화의 희화화는 지속적인 호소력을 유지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 단체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보다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가치에 입각하여 예술성을 담보한 공연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도주의적이고 보편적인 가치가 담긴 예술적 공연을 해나갈 때 보다 탄탄한 공감과 성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북한과 중국의 북한난민 뿐 아니라 AB 지역 탈북자의 어려운 처지도 함께 고민하면서 연대하는 것이 북한예술단체에게 지금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된다.

“탈북자들은 단체가 안돼. 자본주의식 단체 개념을 몰라. 대표 되면 재정이나 모든 것을 자기 것처럼 써. 김정일 스타일이라니까. 돈이 좀 들어오면 개인 욕구로 다 써버리고 단체는 부실해지고 단체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어. 김정일 독재 하에서 살았기 때문에 배운 게 그것 밖에 없어서 그 스타일로 가는 거야. 단체 후원금이 어떻게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 지도 모르고. 개인적으로 먹고 살려면 집세도 내야하고 식품도 사먹어야 하고 사생활로 나가는 돈을 다 그런 걸로 충당하지 않겠어요. 후원금 들어오는 걸 월급으로 생각하고 쓰는 거지.” (강산)

강산은 KY가 대표로 있는 탈북자연대나 양수연이 대표로 있는 탈북자전교회와 북한예술단이 70 탈북자의 대표기관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로 단체를 맡고 있는 대표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이해를 먼저 챙기고 단체의 이해, 단원들의 이해를 소홀히 하고 있다. 이것은 리더십을 갖추지 못한 리더로 결코 단체를 잘 키워나갈 수 없는 것이다. 강산은 이들이 그러한 체험을 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이들이 민주적인 조직 원리, 자본주의식 단체 개념이 어떤 것인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와 공장을 견학하고 그들의 리더십과 조직 관리에 관하여 배우는 프로그램도 도움이 될 것이다. 스스로 어떻게 하면 이 사회가 돌아가는 원칙과 동력을 알 수 있을지 고민하도록 탈북자들에게 건강한 자극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이 사회를 진지하게 탐구하고 싶어지는 내적 동기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먼저 탈북자들이 신분적 안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가능한 계획들이다. 이 사회의 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내 집 앞을 걸으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사당을 견학하고 백악관을 돌아볼 용기를 낼 수 있겠는가. 먼저 이들이 이 사회의 공적 영역으로 들어와 있고서야 비로소 사회의 적응에 가장 근본적이 되는, 이주된 사회의 문화 안에서 편안해지기가 시작될 수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이 미국이라는 사회가 그 자체로 제공하고 있는 문화적 혜택 안으로 들어가 그들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탈북자 내면에 자신의 정체성이 혼란스럽지 않아야 한다. 옆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발걸음도 당당하게 미국의 거리를 걷고 있다고 느낄 때 이들은 이미 건강하고 발전적인 적응을 시작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자신이 이 사회에서 절대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추방당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

## 7. 결론

연구자는 본 논문에서 미국거주 탈북자의 생활과 적응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본격적인 미국 거주 탈북자의 제 문제에 관하여 분석하기에 앞서 이들의 실태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와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연구자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깊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에 관해서는 좀더 자세하게 다뤄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자들이 북한을 탈출하여 이주를 하게 되는 원인을 보면 대기근이 탈출의 중요한 환경을 제공하지만 대기근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강구하던 정책들이 북한사회의 통치 원칙에 의해 처벌받게 될 때 혹은 더 이상의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때 탈출을 감행한다는 것이다.

둘째, 탈북자들이 남한을 떠나 미국으로 이주하는 것도 이와 같은 구도에서 설명할 수 있다. 남한 사회에서 북한출신으로 갖가지 불이익과 차별을 겪으면서도 탈북자들은 새로운 적응 방법을 계속 모색해 간다. 다시 말해서 남한 사회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통과 좌절들이 그 자체로 이들을 이주하게 하지는 않았다. 차라리 햇볕 정책과 함께 형성된 남북한 사회의 화해 분위기로 탈북자들은 신변상의 위협을 더 크게 체험하게 되며 신경증적 불안이 심화되면서 북한에서 더 먼 사회로의 이주를 미래가 불투명한 남한에서의 현재에 대한 돌파구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때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자 미국은 현재의 부조리를 타개하고 안정된 생활을 추구할 수 있는 적합한 지역으로 급부상하게 된 것이다. 이 시점이 되면 남한사회로부터 받았던 갖가지 부당하고 불합리한 조건들은 시너지 효과를 내며 이주를 정당화하는 조건들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미국 거주 탈북자의 이주 경로를 보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로 왔다가 미국으로 오는 경우와 제3국을 거쳐서 바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경우, 중국에서 바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한 가족이 함께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가거나 미국으로 들어온 사례가 있지만 연구자가 수집하지는 못했다. 이주 유형을 보면 가족이 함께 이주하는 경우도 있고 단독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있다. 또 단독으로 이주하여 생활 조건을 마련한 후 나머지 가족을 미국으로 불러들여 이주 전의 가족을 다시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주 유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주 후에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미국에서 살 수 있는 유형과 합법적인 신분이 없이 살아야 하는 유형으로 나누는 것이다. 즉,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경우와 관광이나 밀입국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탈북자의 신분 문제는 이들의 미국 생활과 적응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넷째, 탈북자들은 미국 생활을 시작하며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자원들을 활용한다. 난민 신분을 가지고 있는 탈북자는 국제난민기구의 도움을 받아 난민 정착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적응에서 의식주의 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들은 난민 정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미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초기 문화적 자원들, 영어와 컴퓨터 능력을 갖추 수 있다. 이것은 난민 신분을 갖지 못한 탈북자의 적응 방식과 출발부터 달라지게 하고 있다. 하나의 탈북자를 다르게 만들고 있다.

다섯째, 미국으로 들어오며 교회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받은 탈북자는 교회가 제시하는 스케줄에 따라 교회를 다니며 간증을 해야 한다. 이들을 데리고 온 선교사, 목사들은 대부분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북한체제를 변화시켜 하느님이 들어가는 사회로 만들고 싶어 한다. 탈북자들은 쉴 시간도 없이 간증 스케줄을 따라가야 했으며 탈북자와 교회와의 사이에 보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탈북자와 교회가 만드는 관계의 권력은 균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탈북자 자신이 북한에서 형성했던 관계의 수직적

성격을 당연시하는 측면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탈북자가 자신과 교회가 만드는 관계의 수직적 성격을 근본적으로 문제시하지 않으며 건강한 비판을 통해 주체적으로 관계를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일곱째, 탈북자 지원단체는 일차적으로 탈북자의 인권과 자유, 민주적 삶을 성취하기 위하여 결성되었다. 하지만 실제적인 활동을 살펴볼 때 DHMK의 활동은 미국의 세계 질서 전략에 편승하는 측면이 너무 강하여 비합법적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의 안위와 정착을 외면하므로써 실제로 누구를 위한 운동인지 회의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이들의 신분 문제를 돕기 위하여 새롭게 결성된 탈북자지원위원회 활동이 앞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생적인 탈북자단체로는 탈북자연대, 탈북자전교회, 북한예술단이 있다. 그러나 민주적 단체운영 경험이 적고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분리하고 단체장으로서의 올바른 리더쉽을 훈련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들 단체가 보다 발전적으로 활동해 가기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 거주 탈북자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난민 신분 문제와 탈북자와 교회의 민주적이고 균등한 관계 정립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탈북자 지원 활동이 진행되는 과정이 실제적으로 탈북자를 위한 것인가 교회와 다른 이해집단을 위한 것인지를 가름 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 인권과 자유를 명분으로 하여 이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식으로 전개된다면 그것은 결국 이들을 도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대단히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 거주 탈북자 집단이 형성되는 과정 자체가 지닌 복잡한 맥락을 정확하게 집어내기에 연구자의 지식과 이해가 너무 부족했고 또 연구자 개인적 한계로 인하여 탈북자들과 더 가까이 만나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문제의 근원으로 접근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이에 관심을 가진 많은 뛰어난 연구자들이 보다 심층적이고 근원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들의 현실을 공적 영역으로 드러내 보고자 하였다. 부족하나마 본 연구가 앞으로 탈북자의 인권 회복과 행복한 삶의 실현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다.

## 참고문헌

- 강주원 2003 탈북자 소수집단에 대한 남한사회의 구별짓기 한양대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고경빈 외 2005 국내외 탈북자를 위한 민간지원, 어디까지 왔나, 무엇이 쟁점인가?
- 곽해룡 2005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문제-사례와 지원방안- 한국학술정보
- \_\_\_\_\_ 2006 재중탈북자데 대한 정책방안연구: 중국의 정책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7권 제1호
- 권나혜 2005 남한내 탈북이주민 대학생의 정체성과 생활경험 연세대 대학원 사회학 석사학위 논문
- 김광복 2004 중국 체류 탈북자 문제의 해결 방안 모색 강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수암 2006 해외체류 탈북자 문제 쟁점과 과제 [www.kinu.or.kr](http://www.kinu.or.kr) online series

- 김승철 2006 북한의 가정환경이 북한 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통일연구> vol.11 no.1
- 김영만 2005 대한민국에 사는 탈북자( 새터민)들의 적응실태 한국학술정보(주)  
 북한사람들이 말하는 북한 이야기
- 김윤정 2006 중국내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독일과 베트남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석사논문
- 김원희 2004 국제법상 탈북자 문제를 중심으로 아주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인 200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 하나원)의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평가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태현 노치영 2003 재중북한이탈여성들의 삶-13인의 탈북체험(lived experience)  
 을 중심으로 하우
- 김형태 2004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유형에 관한 통합적 비교연구 송실  
 대 박사학위논문
- 마석훈 탈북청소년에 대한 남한사회의 대응 WTK 10장
- \_\_\_\_\_ 2006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의 사회의식 비교연구: 분배정의와 평등에 대  
 한 태도를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사회교육과 박사학위 논문
- 문남철 2004 북한이탈주민의 이주요인과 이주패턴 및 이주경로 <지리학연구> 제  
 38권 4호 497-611
- 민지원 2003 난민자격 결정기준으로서의 '젠더' 박해 북한여성의 난민자격 가능성  
 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20집 3-37
- 박순영 2002 탈북자 인체측정자료를 이용한 북한의 생물학적 복지수준에 대한 연  
 구 KCA 35-1: 101-127
- \_\_\_\_\_ 2000 북한 식량위기의 장기적 영향 평가: 인체의 성장발육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 사회적 함의 KCA 33-1: 207-240
- 박윤숙 2006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적 지지특성과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서  
 울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유시은, 전우택, 조영아, 홍창형, 엄진섭  
 2005 남한내 북한이탈주민의 3년간 사회적응추적 연구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생활과 교육을 중심으로- <통일연구> 제9권 제1호 73-105
- 이계경 2005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정책방향-탈북여성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이  
 계경 2005년 국정감사 정책질의자료집> 2
- 이미경 2006 탈북여성과의 심층면접을 통해서 본 경제난 이후 북한여성의 지위변  
 화 전망 <가족과 문화> 18집 1호 33-55
- 이새롭 2002 북한이주여성을 둘러싼 사회적 통념과 선택적 협상에 관한 연구 이화  
 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 석사학위 논문
- 이승진 2006 중국내 북한이탈여성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인신매매와 강제송환 문  
 제를 중심으로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혜원 2004 세계화가 국제적 여성 인신매매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현지 2006 정치적 이해에 따른 '북한여성인권' 문제 제기 맥락에 관한 연구: '북한여성인권' 문제제기를위해 사용되는 '북한이주여성증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수현 2001 중국내 북한 난민의 사회적 고통: 한계적 상황과 오점 만들기 KCA 34-2: 211-236
- 전우택 ; 조영아 2005 탈북 여성들의 남한 사회 적응 문제: 결혼 경험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10권 1호, pp.17-35 한국여성심리학회
- 전우택 2006 탈북자의 남한에서의 삶의 질 <신경정신의학> 제45권 제3호 통권 제192권 pp.269-275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정병호 1999 북한어린이 기아와 한국인류학의 과제 KCA 32-2: 155-175  
 \_\_\_\_\_ 환상과 부적응 WTK 제2장 / 비교문화연구 제10집 1호 수정
- 정병호 외 웰컴 투 코리아 (이하 WTK로 표기)
- 정향진 탈북청소년의 감정성과 남북한의 문화심리적 차이 WTK 제15장
- 조정아 임순희 정진경 2006 새터민의 문화갈등과 문화적 통합방안 경제 인문사회 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조영아 2002 남한내 북한이탈주민의 자기방어기제 연구- 남한 주민 및 재한 조선족과의 비교- 연세대 대학원 심리학과 박사학위 논문
- 조영아 전우택 구현지 탈북여성들 WTK 제29장
- 조영주 2004 북한이주민의 '증언'의 자료화를 위한 방법론적 검토 북한여성 연구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 석사학위 논문
- 좋은벗들 북한식량난과 북한인권  
 \_\_\_\_\_ 2006 오늘의 북한, 북한의 내일
- 진미정 이순형 2006 새터민의 자아존중감 및 내적귀인성향에 따른 사회문화적 적응 <대학가정학회지> 제44권 7호
- 허지연 2004 탈북자의 탈북요인과 중국 한국 이주경로에 관한 연구- 이상적 정착지와 행위변화를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만유 반역자의 땅

통일백서

통일연구원 2006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2006 북한이해

